

www.bok.or.kr

2008. 3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Monetary Policy Report

THE BANK OF KOREA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2008년 3월

한국은행

〈韓國銀行法〉

第96條(國會報告 등)

- ① 韓國銀行은 매년 2회 이상 通貨信用政策의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總裁는 國會 또는 그 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韓國銀行法 第96條 第1項이 정하는 바에 따라
通貨信用政策의 遂行狀況에 대한 報告書를 金融通貨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會에 제출합니다.

2008년 3월

韓 國 銀 行

總 裁 李成太

이 성 태

金融通貨委員會

議 長 李 成 太

委 員 姜 文 秀

委 員 李 德 勳

委 員 李 成 男

委 員 李 勝 一

委 員 沈 勳

委 員 朴 奉 欽

차 례

〈概 要〉

I. 金融・經濟動向	1
1. 세계경제	1
2. 국내경제	8
3. 금융시장	14
4. 외환시장	27
5. 물 가	29
II. 通貨信用政策 運營	33
1. 콜금리 목표	33
2. 여타 통화신용정책	39
3. 금융시장 안정	45
III. 通貨信用政策 運營與件 및 方向	47
1. 세계경제	47
2. 국내경제	50
3. 물 가	52
4.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53
〈附 錄〉	55
1.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	
2. 주요 경제지표	

통계표 차례

〈표 I-1〉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1
〈표 I-2〉 주요국의 정책금리 조정	3
〈표 I-3〉 주요 경제성장지표	8
〈표 I-4〉 제조업 평균가동률	10
〈표 I-5〉 주요 고용관련지표	10
〈표 I-6〉 형태별 취업자수 비중	11
〈표 I-7〉 임금상승률	11
〈표 I-8〉 국제수지	12
〈표 I-9〉 지방 생산관련 지표	13
〈표 I-10〉 지방 고용관련 지표	13
〈표 I-11〉 주요 시장금리	14
〈표 I-12〉 주요 주식시장 지표	15
〈표 I-13〉 예금취급기관 부문별 통화공급내역	17
〈표 I-14〉 주요 금융기관 수신	18
〈표 I-15〉 은행의 기업대출	19
〈표 I-16〉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19
〈표 I-17〉 가계신용	20
〈표 I-18〉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율	20
〈표 I-19〉 외환보유액	28
〈표 I-20〉 외평채 및 국내은행 단기차입금 가산금리	28
〈표 I-21〉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변화	28
〈표 I-22〉 소비자물가 등락률	29
〈표 I-23〉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간 차이	30
〈표 I-24〉 주요 품목별 물가상승률	30

〈표 I-25〉 생산자물가 등락률	30
〈표 I-26〉 수출입물가 등락률	31
〈표 I-27〉 주택, 전세 및 토지가격 등락률	31
〈표 I-28〉 기대인플레이션	32
〈표 II- 1〉 실물경제지표	34
〈표 II- 2〉 콜금리 목표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4
〈표 II- 3〉 관리대상 통합재정수지	36
〈표 II- 4〉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및 이자지급액	36
〈표 II- 5〉 본원통화 및 유동성 조절	36
〈표 II- 6〉 총액대출한도 조정 내용	39
〈표 II- 7〉 2007년 경제교육 실적	41
〈표 II- 8〉 공동검사 실시 상황	45
〈표 II- 9〉 한은금융망 자금결제 동향	46
〈표 III- 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47
〈표 III- 2〉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Brent油) 전망	48
〈표 III- 3〉 기타원자재가격 전망	49
〈표 III- 4〉 경제성장률 전망	50
〈표 III- 5〉 물가상승률 전망	52

그림 차례

〈그림 I-1〉 세계 경제성장률	1
〈그림 I-2〉 주요 지역별 경제성장률	2
〈그림 I-3〉 주요국의 장기시장금리	2
〈그림 I-4〉 주요국의 단기시장금리	3
〈그림 I-5〉 미국 및 유로지역의 주가지수	3
〈그림 I-6〉 일본 및 중국의 주가지수	4
〈그림 I-7〉 주요 환율	4
〈그림 I-8〉 국제원자재가격	5
〈그림 I-9〉 주요 소비지표 증가율	8
〈그림 I-10〉 주요 투자지표 증가율	9
〈그림 I-11〉 상품 수출입 증가율	9
〈그림 I-12〉 주요 산업별 성장률	10
〈그림 I-13〉 산업별 취업자수 증가율	11
〈그림 I-14〉 수출입 증가율 및 수출입차	12
〈그림 I-15〉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12
〈그림 I-16〉 장기시장금리	14
〈그림 I-17〉 단기시장금리	14
〈그림 I-18〉 은행 여수신금리	15
〈그림 I-19〉 차입주체별 은행 대출평균금리	15
〈그림 I-20〉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	16
〈그림 I-21〉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	16
〈그림 I-22〉 L, Lf 및 M2 증가율	16
〈그림 I-23〉 M1 및 본원통화 증가율	17

〈그림 I-24〉 통화유통속도 등락률	17
〈그림 I-25〉 예금은행 상품별 수신	18
〈그림 I-26〉 자산운용회사 상품별 수신	18
〈그림 I-27〉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19
〈그림 I-28〉 주요 기업자금사정지표	20
〈그림 I-29〉 원/달러 및 원/엔 환율	27
〈그림 I-30〉 원/달러 환율 변동폭	27
〈그림 I-31〉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29
〈그림 II- 1〉 콜금리 목표 조정	33
〈그림 II- 2〉 총액한도대출금리 및 유동성조절대출금리 조정	33
〈그림 II- 3〉 국제유가	34
〈그림 II- 4〉 콜금리 목표 및 시장금리	35
〈그림 II- 5〉 원/달러 환율	36
〈그림 II- 6〉 콜금리 및 콜금리의 목표대비 스프레드	39
〈그림 II- 7〉 외화대출 현황	40
〈그림 II- 8〉 내외금리차 및 스왑레이트간 격차	41
〈그림 III- 1〉 경제성장률 Fan Chart	50
〈그림 III- 2〉 원유도입단가	52
〈그림 III- 3〉 소비자물가 상승률 Fan Chart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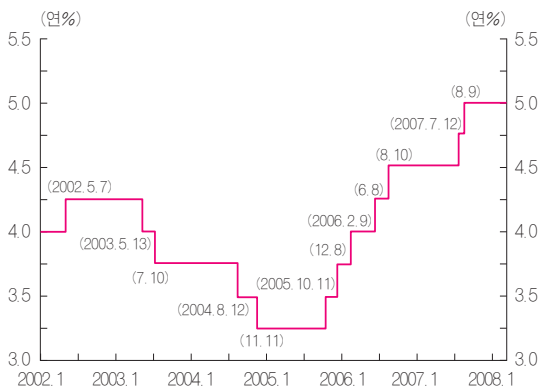
참고 차례

〈참고 I - 1〉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주요국의 정책대응	6
〈참고 I - 2〉 2007년 11월의 통화·금리 스왑시장 불안 원인	21
〈참고 I - 3〉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 배경	23
〈참고 I - 4〉 2007년중 시중자금 흐름 변화	25
〈참고 II - 1〉 정책금리 인상의 효과 점검	37
〈참고 II - 2〉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43

〈概 要〉

1 2007년 하반기 이후 한국은행은 실물경제의 개선추세가 이어지도록 하면서도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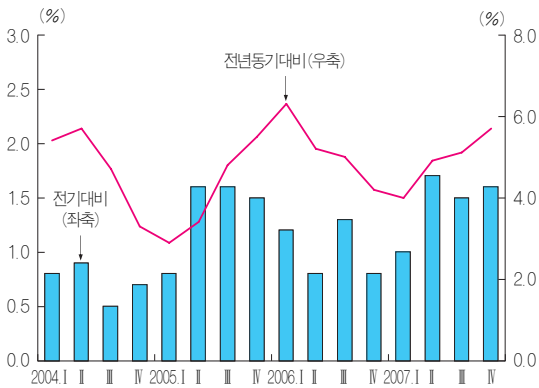
콜금리 목표 조정



2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시중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2/4분기부터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7월과 8월 콜금리 목표를 각각 0.25% 포인트 올려 연 5.0%로 조정하였다. 이에 맞추어 총액한도대출금리도 연 2.75%에서 3.25%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유동성 증가세 억제 등을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1/4분기 1.6조원에 이어 3/4분기부터 추가로 1.5조원 감축하여 총 6.5조원으로 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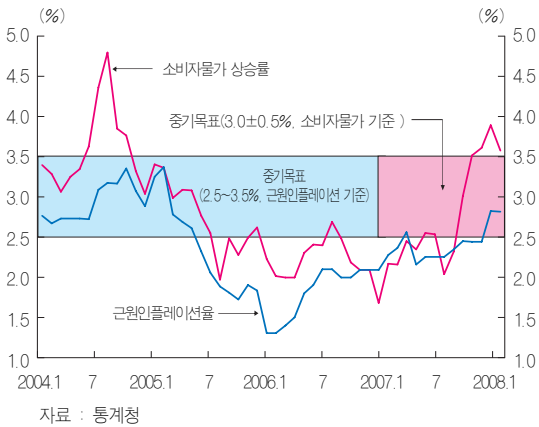
9월 이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거시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콜금리 목표를 연 5.0%로 유지하였다.

GDP 성장률



3 이와 같은 정책 결정의 배경으로서 먼저 실물경제동향을 보면 국내경기는 2007년 하반기중 수출 호조와 소비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상승기조를 지속하였으며 GDP 성장률은 3/4분기 1.5%(전년동기대비 5.1%), 4/4분기 1.6%(전년동기대비 5.7%)를 나타내었다. 2008년 들어서도 국내경기는 수출의 높은 신장세 등에 힘입어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경기 부진,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성장의 하향리스크가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인플레이션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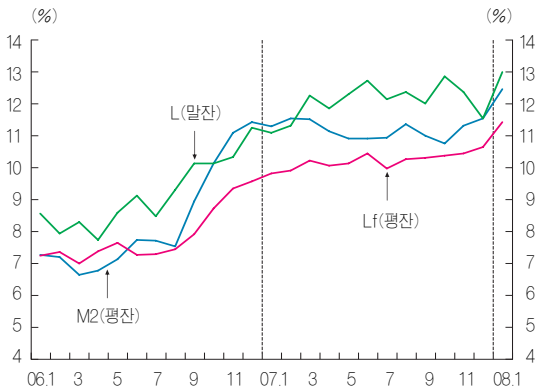


4 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3/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2.3% 상승에 그쳐 중기물가안정목표 범위(3.0±0.5%)의 하한을 밑돌았으나 4/4분기에는 고유가 등 비용요인에 더해 그간의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상승률이 3.3%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를 보인 데 이어 금년 1월과 2월에도 목표범위의 상한을 웃도는 3.9% 및 3.6%를 기록하였다.

주택가격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도 오름세가 제한되었으며 토지가격도 대체로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다만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가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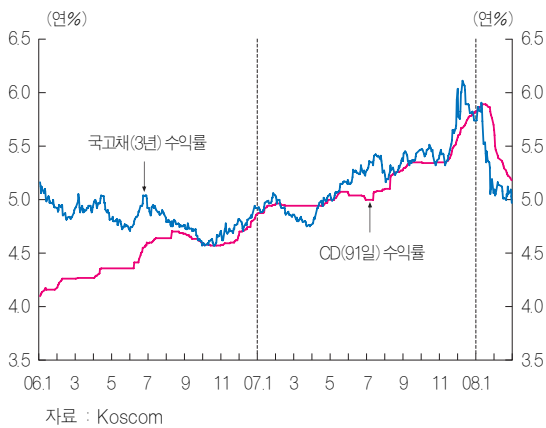
일부 수도권 개발호재지역의 토지가격은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L, Lf 및 M2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5 금융시장에서는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중소기업대출도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수요 개발, 경기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통화스왑 등을 통한 외국인의 채권매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통화증가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시장금리



장단기 시장금리는 7월과 8월의 콜금리 목표 인상 이후에도 은행들이 주식형펀드, CMA 등으로의 예금이탈에 대응하여 CD·은행채 발행 확대 등을 통해 대출재원을 마련하면서 연말까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장기시장금리는 11월중 통화 및 금리 스왑시장의 불안이 겹쳐 일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년 들어서는 미국 정책금리 큰 폭 인하에 따른 콜금리 목표 하향조정 기대, 주식시장 부진으로 인한 은행예금의 대폭 증가 등으로 장단기금리가 모두 빠르게 하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는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시차를 두고 반영하면서 금년 1월까지 오름세를 보였으나 2월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여수신금리 격차는 금융기관간 대출경쟁에 따른 여신금리의 상승폭 제한으로 축소되어 오다가 2월 들어 수신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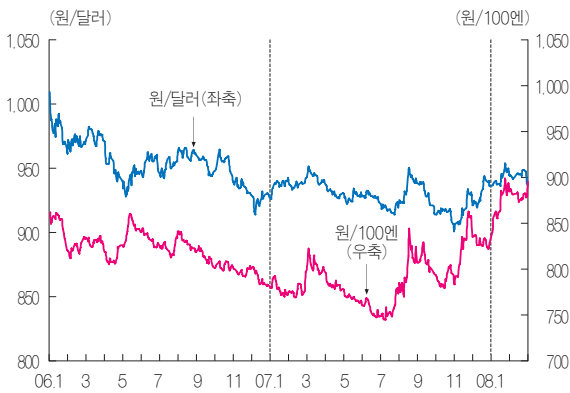
우리나라 및 미국의 주가지수



주가는 7월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 확산 등으로 일시 급락하기도 하였으나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여 10월말에는 사상 최고치인 2,06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1월 이후에는 글로벌 증시 불안,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영향 등으로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비율은 지난해 6월말 33.5%에서 금년 2월말에는 29.5%로 낮아졌다.

6 한국은행은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와 환율의 움직임에도 유의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였다. 하반기중 관리대상 통합재정수지는 세수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당초 예상과 달리 흑자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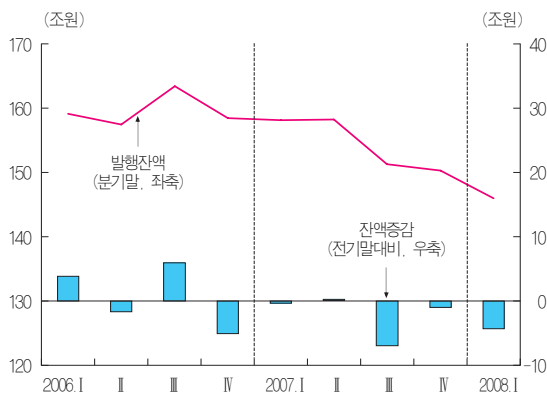
원/달러 및 원/엔¹⁾ 환율



주 : 1) 한국외환은행 당일 최종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

원/달러 환율은 8월 하순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국제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서 10월말에는 900.7원까지 떨어졌다. 11월 이후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리스크 회피성향 강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여 금년 2월말 현재 939.0원을 기록하였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및 증감액¹⁾



주 : 1) 2008년 1/4분기는 1~2월중

7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조절하였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2008년 2월말 현재 146.0조원으로 지난해 6월말에 비해 12.2조원 감소하였다. 이처럼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줄어든 것은 총액대출한도 축소, 세수호조에 따른 재정수지 흑자 등으로 유동성 환수 필요규모가 줄어든 데다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환매조건부채권 매각의 활용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8 한국은행은 지난해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간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금리중

심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급준비제도 및 공개시장조작 방식을 개선하고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⑨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을 보면 2008년중 우리 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내수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금융 시장 불안, 미국경기 부진,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흑자가 축소되고 서비스·소득수지의 적자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목표범위의 중심선을 웃도는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으로 물가오름세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의 금리 민감도 상승, 내외금융 통합 등으로 시중자금의 유통현상이 나타나고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가 확대될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국제금융

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증대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10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금융시장, 미국경기, 국제유가 등 해외요인의 움직임을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 새 운영체계 시행 이후의 금융시장 상황과 금융기관 적응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시장조작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은 물론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자금흐름 급변동 및 국제금융시장 동요 가능성 등 잠재적 시장불안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히 대처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 도입된 자금조정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I. 金融・經濟動向

1. 世界經濟

가. 經濟成長

세계경제는 2007년 3/4분기까지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4/4분기 들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먼저 미국경제는 3/4분기를 정점으로 성장의 활력이 뚜렷이 저하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3/4분기에는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의 견실한 증가 및 수출 호조로 GDP 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이 전분기의 3.8%에서 4.9%로 더욱 높아졌다. 4/4분기에는 주택경기 부진에 더해 개인소비, 설비투자 및 수출의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0.6%로 크게 낮아졌다. 연간 성장률도 2.2%에 그쳐 전년의 2.9%를 상당폭 밀돌았다.

중국경제는 정책당국의 긴축조치가 실시되는 가운데서도 고성장을 지속하였다. 민간소비와 고정자산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이어가면서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3/4분기 11.5%, 4/4분기 11.2%, 그리고 연간으로는 11.4%를 기록하였다.

일본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였다. 3/4분기에는 주택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신장세 확대와 설비투자 개선 등에 힘입어 GDP 성장률(전기대비)이 전분기의 -0.4%에서 0.3%로 돌아섰다. 4/4분기에는 설비투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0.9%로 높아졌다. 연간으로는 상반기

〈표 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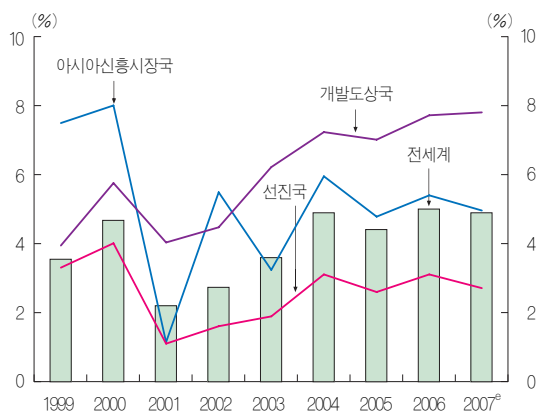
주요국의 경제성장률¹⁾
(전기대비²⁾)

	2005	2006	2007				
			연간 ³⁾	I	II	III	IV
전 세계	4.4	5.0	4.9	-	-	-	-
선진국 ³⁾	2.6	3.1	2.7	-	-	-	-
미국	3.1	2.9	2.2	0.6	3.8	4.9	0.6
일본	1.9	2.4	2.1	1.0	-0.4	0.3	0.9
유로지역	1.6	2.8	2.6	0.8	0.3	0.7	0.4
아시아신흥시장국 ⁴⁾	4.7	5.3	4.9	-	-	-	-
개발도상국	7.0	7.7	7.8	-	-	-	-
아시아 (중국)	9.0	9.6	9.6	-	-	-	-
중국	10.4	11.1	11.4	11.1	11.9	11.5	11.2
중남미	4.6	5.4	5.4	-	-	-	-

주 : 1) IMF 기준(2007년은 전망치). 단 개별국가 및 유로지역은 각국 발표치
 2) 미국은 전기대비 연율,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3) OECD 발표치 기준
 4)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7.10, 2008.1)
 OECD, OECD Economic Outlook(2007.12)

〈그림 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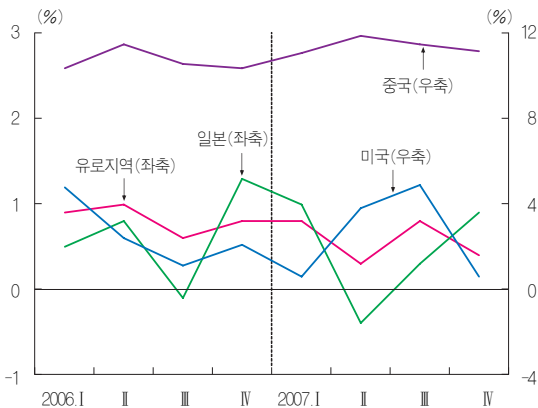
세계 경제성장률¹⁾



주 : 1) IMF 발표치 기준. 단 선진국은 OECD 발표치 기준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7.10, 2008.1)
 OECD, OECD Economic Outlook(2007.12)

〈그림 1-2〉

주요 지역별 경제성장률
(전기대비¹⁾)



주 : 1) 미국은 전기대비 연율,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의 회복세 약화로 2.1% 성장에 그쳐 전년의 2.4%에 미치지 못하였다.

유로지역경제는 4/4분기 들어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3/4분기에는 고정투자와 수출의 호조로 GDP 성장률(전기대비)이 전분기의 0.3%에서 0.7%로 높아졌다. 4/4분기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0.4%로 낮아졌다. 연간으로는 전년과 비슷한 2.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나. 國際金融市場

〈그림 1-3〉

주요국의 장기시장금리¹⁾



주 : 1) 각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기준, 단 유로지역은 독일 국채 수익률 기준
자료 : Bloomberg

주요국의 장기시장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2007년 하반기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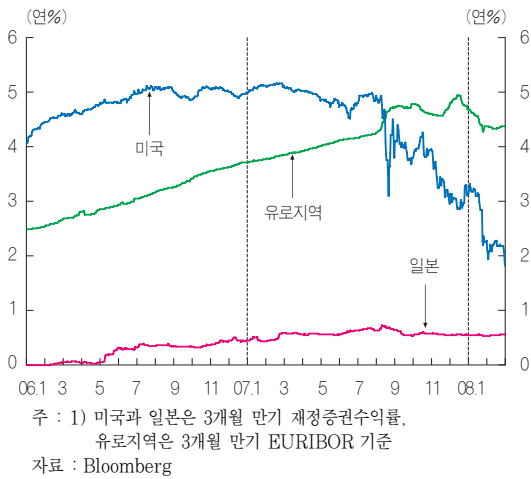
미국의 장기시장금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07년 6월말의 5.02%에서 금년 1월 22일에는 5년래 최저수준인 3.43%까지 떨어졌다. 1월 하순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증대 등으로 반등하여 2월말 현재 지난해 6월말대비 1.51% 포인트 하락한 3.51%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장기시장금리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6월말의 1.88%에서 금년 2월말 현재 1.37%로 0.51% 포인트 낮아졌다. 유로지역 장기시장금리는 미국 금리와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지난해 6월말의 4.57%에서 금년 2월말 현재 3.89%로 0.68% 포인트 낮아졌다.

단기시장금리는 국별로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림 I - 4>

주요국의 단기시장금리¹⁾



미국의 단기시장금리(3개월 만기 재정증권수익률)는 8월중 신용리스크 증대에 따른 무위험자산 확보 경쟁의 영향으로 일시 급락한 후 반등하였다. 9월 이후에는 연준의 적극적 정책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금년 2월말 현재 지난해 6월말의 4.80%에 비해 2.96% 포인트 낮은 1.84%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단기시장금리(3개월 만기 재정증권수익률)는 8월 중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성향 증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 낮아진 후 0.5%대를 유지하였다. 유로지역의 단기시장금리(3개월 만기 EURIBOR)는 신용리스크 증대의 영향으로 일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ECB가 유동성공급을 확대하면서 정책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대체로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표 I - 2>

주요국의 정책금리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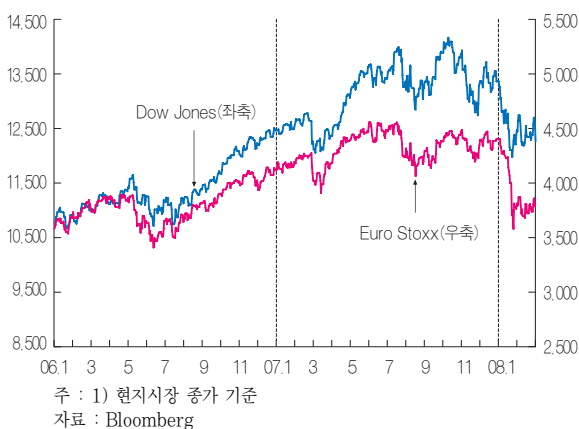
	미국	일본	ECB
2003. 12월말	1.00		2.00
2004. 12월말	2.25		2.00
2005. 12월말	4.25		2.25
2006. 12월말	5.25	0.25	3.50
2007. 2월말		0.50	
3월말			3.75
6월말			4.00
9월말	4.75		
10월말	4.50		
12월말	4.25		
2008. 1월말	3.00		

자료 : 각국 중앙은행

주요국의 주가는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I - 5>

미국 및 유로지역의 주가지수¹⁾



미국 주가는 7월 중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영향으로 급락하였다가 8월 중순 이후에는 연준의 재할인금리 인하, 기업실적 호조 등을 배경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10월 9일에는 Dow Jones 산업평균지수가 사상최고치인 14,164.5를 기록하였다. 10월 중순 이후에는 주요 금융기관들의 예상을 웃도는 모기지 투자 손실 및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라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나 정부의 금융안정대책이 발표되었던 12월 초순과 연준이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였던 금년 1월 하순에는 반등하기도 하였다. 금년 2월말 현재 Dow Jones 산업평균지수는 전년 6월말대비 8.5% 하락한 12,266.4를 기록하였다. 유로지역 주가는 지난해 하반기에 국제금융시장 불안, ECB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의 요인이 번갈아 작용하면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금년 들어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Societe

Generale의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급락하였다. 금년 2월말 현재 Euro Stoxx 지수는 3,724.5로 지난해 6월말에 비해 17.0% 하락하였다.

<그림 I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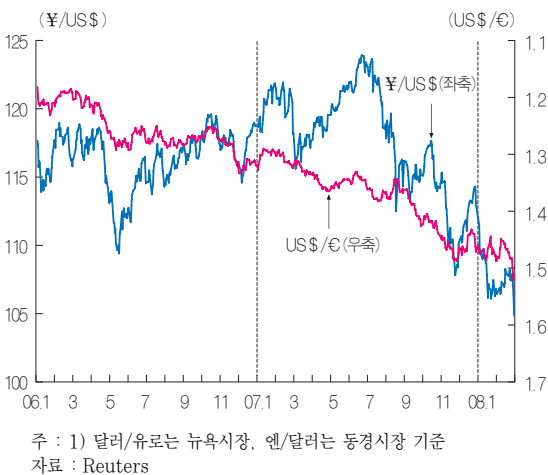
일본 및 중국의 주가지수¹⁾



일본 주가는 엔화 급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 은행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투자 손실, 경기회복세 약화 전망 등으로 약세를 지속하였다. 금년 2월말 현재 Nikkei 지수는 전년 6월말대비 25.0% 떨어진 13,603.0을 기록하였다. 중국 주가는 높은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10월 16일 상하이종합지수가 사상최고치인 6,092.1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0월 하순 이후에는 정부의 잇따른 긴축조치, 미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폭설 피해, 비유동주 보호 예수 물량 출회 예상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금년 2월말 현재 상하이종합지수는 4,348.5로 지난해 6월말에 비해서는 13.8% 상승하였다.

<그림 I - 7>

주요 환율¹⁾



미 달러화는 2007년 하반기 이후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내었다.

유로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중국의 외환보유액 투자 다변화 조짐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지속하여 11월 26일에는 유로당 1.49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후 미국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ECB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약화 등 강세 요인과 미국 경기침체 우려,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등 약세 요인이 교차하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월 하순 들어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나타내었다. 금년 2월말 현재 미 달러화는 유로당 1.52달러로 전년 6월말대비 10.8% 절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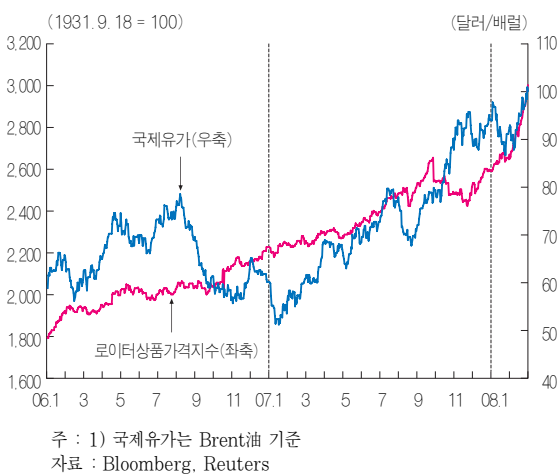
엔화에 대해서는 국제금융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던 11월 하순과 12월을 제외하고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약세를 보여 2월말 현재 지난해

6월말대비 15.0% 절하된 달러당 104.9엔을 기록하였다.

다. 國際原資材價格

〈그림 I - 8〉

국제원자재가격¹⁾



국제유가는 2007년 하반기 이후에도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원유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이 증대되고 투기자금이 유입되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7월 하순 들어 미국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일시 하락하였던 국제유가는 8월 하순 이후 이란 핵문제, 터키-쿠르드 반군간 무력 충돌, 원유재고 감소, 미 달러화 약세 지속에 편승한 투기자금 유입 증대를 배경으로 급등세를 지속하였다. 금년에는 세계경기 둔화 전망 및 미국 석유류 재고 증가로 반락하였다가 2월 들어 베네수엘라의 대미 원유수출 중단 우려,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다시 상승하여 하순에는 배럴당 100달러(Brent油 기준)를 상회하였다. 2월말 현재 국제유가는 지난해 6월말 대비 37.5% 상승한 배럴당 100.2달러를 기록하였다.

원유를 제외한 기타 국제원자재가격은 소맥, 옥수수 등 곡물가격이 주산지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공급차질, 고유가로 인한 대체연료 수요 급증 등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이와 달리 알루미늄, 동 등 비철금속 가격은 주요국의 주택경기 둔화,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그간의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금년 들어 반등하였다. 2월말 현재 로이터상품가격지수는 3,003.5로 전년 6월말대비 25.4%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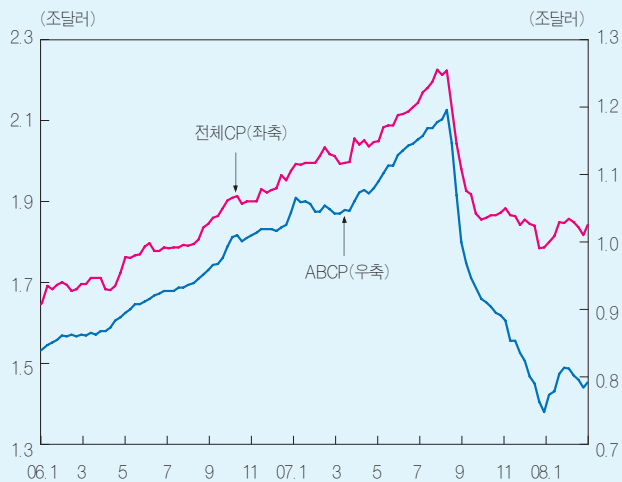
<참고 I - 1>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주요국의 정책대응

미국의 과열된 주택경기가 진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신용공급의 제약으로 이어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실물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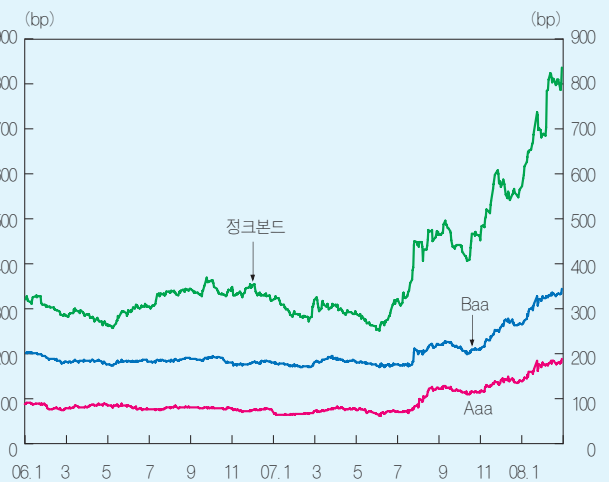
지난해 2월 글로벌 주가 급락을 계기로 표면화되었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는 6월 하순 모기지 관련 증권에 투자했던 일부 헤지펀드가 파산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8월 모기지 투자손실로 인한 대형펀드의 환매중단 발표, 9월 영국 모기지전문은행인 Northern Rock의 예금인출사태, 10월 이후 대형 금융기관들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손실 발표, 12월 채권보증기관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 등이 잇달으면서 미국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발행이 크게 줄어들고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하였으며 글로벌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미국 기업어음 발행잔액 추이



자료 : 미 연준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¹⁾ 추이



주 : 1)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대비
자료 : Bloomberg, JP Morgan

이러한 가운데 신용조건이 우량한 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이 변동금리부 모기지(ARM: Adjustable Rate Mortgage)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등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11월 이후 제조업 및 고용관련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미국의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다.

미국 모기지 연체율
(기말기준)

	2005	2006	2007			
			I	II	III	IV
서브프라임	11.6	13.3	13.8	14.8	16.3	17.3
프라임	2.5	2.6	2.6	2.7	3.1	3.2
(ARM)	2.5	3.4	3.7	4.2	5.1	5.5

자료 : Bloomberg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주요국 중앙은행 등은 정책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하였다. 미 연준은 정책금리를 2007년 9월 50bp, 10월과 12월에 각각 25bp,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125bp 등 총 225bp 인하하고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외에 2007년 12월에는 기존의 재할인과는 별도로 기간입찰대출제도(Term Auction Facility)¹⁾를 도입하여 유동성 공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미국 정부도 2007년 12월 금리 수준이 낮은 연방주택청 보증 모기지로의 리파이낸싱,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금리동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영란은행은 2007년 9월 Northern Rock 예금에 대한 전액보장을 선언하고 12월과 금년 2월 정책금리를 25bp씩 인하하였으며 공개시장조작 규모 및 대상증권도 확대하였다. 이 밖에 2007년 12월에는 미국, 유로지역, 영국, 스위스 및 캐나다 등 5개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자금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미 연준이 ECB 및 스위스 중앙은행과 통화스왑을 통해 유럽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주요국 중앙은행 등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단기금리(3개월물 Libor)가 12월 중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이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기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8년중 변동금리부 모기지의 금리재조정 규모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주택경기 침체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대응

미 연준	- 정책금리(5차례 225bp) 및 재할인금리(6차례 275bp) 인하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종전</th> <th>07.8.17일</th> <th>9.18일</th> <th>10.31일</th> <th>12.11일</th> <th>08.1.22일</th> <th>1.30일</th> </tr> </thead> <tbody> <tr> <td>· 정책금리(%)</td> <td>5.25</td> <td>5.25</td> <td>4.75</td> <td>4.50</td> <td>4.25</td> <td>3.50</td> <td>3.00</td> </tr> <tr> <td>· 재할인금리(%)</td> <td>6.25</td> <td>5.75</td> <td>5.25</td> <td>5.00</td> <td>4.75</td> <td>4.00</td> <td>3.50</td> </tr> </tbody> </table>		종전	07.8.17일	9.18일	10.31일	12.11일	08.1.22일	1.30일	· 정책금리(%)	5.25	5.25	4.75	4.50	4.25	3.50	3.00	· 재할인금리(%)	6.25	5.75	5.25	5.00	4.75	4.00	3.50
		종전	07.8.17일	9.18일	10.31일	12.11일	08.1.22일	1.30일																	
· 정책금리(%)	5.25	5.25	4.75	4.50	4.25	3.50	3.00																		
· 재할인금리(%)	6.25	5.75	5.25	5.00	4.75	4.00	3.50																		
- 재할인만기 1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연장(07.8.17일) - 기간입찰대출(TAF) 실시(07.12~08.2월중 총 1,600억달러) - ECB, 스위스 중앙은행과 총 24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실시(07.12월)																									
ECB	- 2007년 6월 이후 정책금리 현 수준(4.00%) 유지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으로 조달한 200억달러로 기간입찰대출(TAF) 실시(07.12~08.1월중 4차례)																								
영란은행	- 모기지전문은행인 Northern Rock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 계획 발표(07.9.14일) - Northern Rock 예금에 대한 전액보장 선언(07.9.17일) - 3개월물 RP 실시 계획 발표(07.9.19일) - 정책금리 인하(07.12.6일 5.75% → 5.50%, 08.2.7일 5.50% → 5.25%) - 공개시장조작 규모 및 대상증권 확대(07.12.12일)																								

1) 기간입찰대출제도(TAF: Term Auction Facility)는 금융기관이 신뢰성 저하를 우려하여 재할인 이용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응하여 자금수취 금융기관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할인 이용가능 기관 및 재할인 적격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시장조작과 같은 입찰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2. 國內經濟

가. 經濟成長

〈표 I - 3〉

주요 경제성장지표¹⁾
(전기대비)

	2005	2006	2007 ^a				
			연간	I	II	III	IV
G D P	4.2	5.1	5.0	1.0 (4.0)	1.7 (4.9)	1.5 (5.1)	1.6 (5.7)
(민간소비)	3.6	4.5	4.5	1.6 (4.1)	0.9 (4.4)	1.3 (4.8)	0.8 (4.6)
(설비투자)	5.7	7.8	7.6	4.5 (10.9)	1.6 (11.0)	-1.8 (2.3)	2.1 (6.5)
(건설투자)	-0.2	-0.1	1.2	-0.3 (3.7)	-1.2 (1.6)	0.2 (-0.1)	1.2 (0.4)
(상품수출)	9.7	12.4	12.0	3.3 (10.5)	4.3 (10.3)	1.8 (9.0)	7.4 (17.7)
(상품수입)	6.4	11.2	10.9	4.0 (9.6)	5.9 (10.9)	-2.4 (5.1)	9.9 (17.6)
G N I	0.7	2.6	3.9	-0.8 (3.6)	2.0 (4.6)	1.5 (5.2)	0.2 (2.6)

주 : 1) ()내는 원계열의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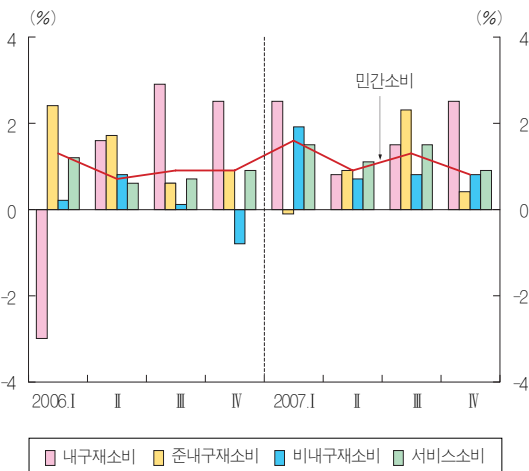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2007년 하반기에도 수출 호조와 민간소비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상승기조를 지속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3/4분기에는 설비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5%(전년동기대비 5.1%)를 나타내었으며 4/4분기에는 설비투자가 증가로 돌아서면서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6%(전년동기대비 5.7%)로 높아졌다.

3/4분기중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GDP 성장률과 동일한 전기대비 1.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4/4분기에는 원유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GDP 성장률보다 크게 낮은 전기대비 0.2%에 그쳤다.

(需要動向)

〈그림 I - 9〉

주요 소비지표 증가율
(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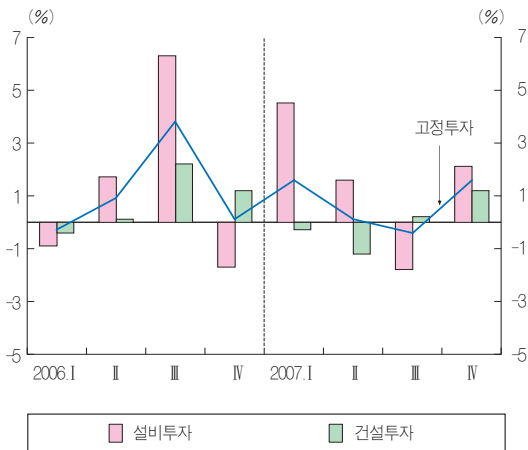


수요부문별로 보면 먼저 민간소비는 경기 상승 및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났다. 분기별로는 3/4분기 전기대비 1.3%(전년동기대비 4.8%), 4/4분기 전기대비 0.8%(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다. 형태별로는 내구재소비와 서비스소비가 호조를 보였으며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소비와 식료품 등 비내구재소비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설비투자는 3/4분기에 위축되었다가 4/4분기 들어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3/4분기에는 반도체제조용장비, 광학기기 등 기계류투자가 크게 줄어 전기대비 1.8% 감소(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였으나 4/4분기에는 운수장비투자

〈그림 I-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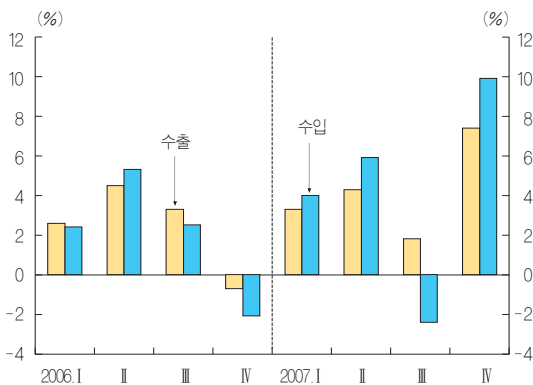
주요 투자지표 증가율
(전기대비)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반도체제조용장비를 중심으로 기계류투자도 확대되면서 전기대비 2.1%(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소폭 증가하였다. 3/4분기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호조를 보였으나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토목건설이 위축되면서 전기대비 0.2% 증가(전년동기대비 0.1% 감소)에 그쳤다. 4/4분기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주거용 건물건설과 도로 등 토목건설도 늘어나 전기대비 1.2%(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하였다.

〈그림 I-11〉

상품 수출입 증가율
(물량 기준, 전기대비)



수출(상품)은 신흥시장국 등의 해외수요 호조,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 등에 힘입어 신장세가 확대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3/4분기에는 반도체, 산업용기계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1.8%(전년동기대비 9.0%) 증가하였다. 4/4분기에는 산업용기계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무선통신기기 수출의 신장세가 확대되면서 전기대비 7.4%(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하였다. 수입(상품)은 설비투자에 연동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3/4분기에는 산업용기계 및 운송장비 수입이 줄어들면서 전기대비 2.4% 감소(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였으나 4/4분기에는 산업용기계 수입이 다시 늘어나고 화학제품 수입도 확대되면서 전기대비 9.9%(전년동기대비 17.6%)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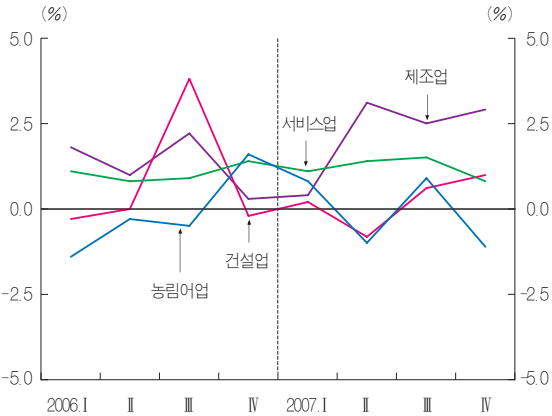
(生産動向)

하반기중 산업별 생산활동을 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업 및 농림어업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제조업 생산은 3/4분기중 반도체, 컴퓨터기기 등 전기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전기대비 2.5%(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였으며 4/4분기에는 반도체

〈그림 I-12〉

주요 산업별 성장률
(전기대비)



생산이 활기를 지속하고 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등의 생산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전기대비 2.9%(전년동기대비 9.5%)로 더욱 높아졌다. 하반기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상반기(80.1%)보다 소폭 상승한 80.7%를 기록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중 전기대비 1.5%(전년동기대비 5.5%), 4/4분기중 전기대비 0.8%(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운수창고업, 의료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호조를 보였다.

건설업은 공공부문이 상반기중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민간부문이 비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3/4분기에는 전기대비 0.6%(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하였으며 4/4분기에는 전기대비 1.0%(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다. 농림어업 생산은 3/4분기에 전기대비 0.9%(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였으나 4/4분기에는 1.1%(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하였다.

〈표 I-4〉

제조업 평균가동률

2005	2006	2007					2008 1월
		연간	상반	하반	Ⅲ	Ⅳ	
79.5	80.0	80.4	80.1	80.7	80.1	81.2	82.1

자료 : 통계청

〈표 I-5〉

주요 고용관련지표

	2006			2007			2008 1~2월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경제활동인구	2,398	2,386	2,410	2,422	2,409	2,434	2,372
(증가율) ¹⁾	1.0	1.0	0.9	1.0	1.0	1.0	0.7
경제활동참가율	61.9	61.7	62.0	61.8	61.7	62.0	60.2
취업자수	2,315	2,299	2,331	2,343	2,327	2,360	2,292
(증감) ¹⁾	29	31	28	28	28	29	22
실업자수 ²⁾	83	83	82	78	79	77	74
(계절조정전)	83	87	79	78	82	75	80
실업률 ²⁾	3.5	3.5	3.4	3.2	3.3	3.2	3.0
(계절조정전)	3.5	3.6	3.3	3.2	3.4	3.1	3.4

주 : 1)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후

자료 : 통계청

나. 雇傭·賃金

(雇傭動向)

하반기중 고용사정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상반기 28만명에서 29만명으로 확대되었으며 계절조정후 실업률도 상반기의 3.3%에서 3.2%로 낮아졌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취업자수 증가폭이 3/4분기 30만명에서 4/4분기 28만명으로 축소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제조업 취업자수도 감소세가 둔화되었

<그림 I-13>

산업별 취업자수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다. 상반기중 증가세를 나타내었던 건설업 취업자수는 하반기 들어 소폭의 감소로 반전되었다.

한편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4.5%로 높아져 고용의 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賃金動向)

하반기중 전산업 명목임금(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5.8%로 상반기의 5.4%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이와 달리 명목임금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조정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2.8%를 기록하여 상반기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표 I-6>

형태별 취업자수 비중¹⁾

	2006			2007			2008 1~2월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상용근로자	52.8	52.5	53.1	54.0	53.4	54.5	55.3
임시근로자	33.1	33.1	33.0	32.4	32.8	32.0	31.9
일용근로자	14.2	14.4	13.9	13.6	13.8	13.5	12.8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다. 對外去來

(經常收支)

경상수지는 2007년 상반기의 16.3억달러 적자에서 하반기중 75.8억달러 흑자로 전환되었다. 연간 전체로는 59.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의 53.9억달러를 상회하였다. 금년 1월 들어서는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에다 상품수지 적자 전환 등으로 26.0억달러 적자를 나타내었다.

<표 I-7>

임금상승률
(전년동기대비)

	2006			2007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명목임금	5.7	5.8	5.6	5.6	5.4	5.8
실질임금	3.4	3.5	3.3	2.9	3.1	2.8

자료 : 노동부

구성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흑자폭이 상반기의 130.1억달러에서 164.0억달러로 확대되었다. 하반기중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 경비, 특허권사용료 지급이 증가하였으나 운수서비스 및 금융서비스의 수입이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적자규모가 상반기의 105.8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소득수지는 대외 이자 및 배당

〈표 I - 8〉

국제수지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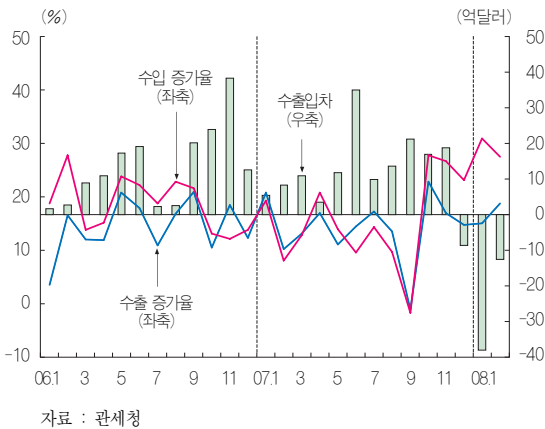
	2006			2007 ^a			2008 ^b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1월
경 상 수 지	53.9	-17.4	71.3	59.5	-16.3	75.8	-26.0
상 품 수 지	279.1	117.9	161.1	294.1	130.1	164.0	-10.1
수출(통관)	3,254.6	1,553.6	1,701.1	3,714.9	1,776.9	1,938.0	323.2
수입(통관)	3,033.8	1,492.6	1,601.2	3,568.5	1,702.2	1,866.2	361.1
서 비 스 수 지	-189.6	-92.9	-96.8	-205.7	-105.8	-100.0	-20.7
수 입	498.9	236.1	262.8	630.3	298.8	331.5	63.2
지 급	688.5	329.0	359.5	836.1	404.6	431.5	83.9
소 득 수 지	5.3	-18.8	24.1	7.7	-22.3	30.0	7.7
경상미접수지	-40.9	-23.7	-17.2	-36.5	-18.3	-18.2	-2.9
자 본 수 지	179.7	101.4	78.3	62.3	117.6	-55.2	2.7
투 자 수 지	211.0	117.2	93.8	86.2	132.6	-46.3	3.8
직 접 투 자	-45.4	-10.9	-34.5	-137.0	-38.3	-98.7	-24.9
증 권 투 자	-227.5	-122.3	-105.1	-190.9	-105.2	-85.7	-39.3
기 타 투 자	483.8	250.4	233.4	414.1	276.0	138.1	67.9
기타자본수지	-31.3	-15.7	-15.5	-23.9	-15.0	-8.9	-1.0
준비자산증(-)감	-221.1	-100.0	-121.2	-151.3	-102.5	-48.8	14.4
오차 및 누락	-12.4	15.9	-28.4	29.4	1.2	28.2	8.9

금 수입 증가로 30.0억달러 흑자를 보였으며 경상미접수지는 18.2억달러 적자를 나타내었다.

하반기중 수출(통관 기준)은 1,938.0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중화학공업제품 수출이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활기를 지속하였으나 경공업제품 수출은 섬유류의 부진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하반기중 수입(통관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6.6% 증가한 1,866.2억달러를 나타내었다. 품목별로는 곡물 등 소비재수입과 철강 등 원자재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본재수입도 수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그림 I -14〉

수출입 증가율 및 수출입차
(통관 기준,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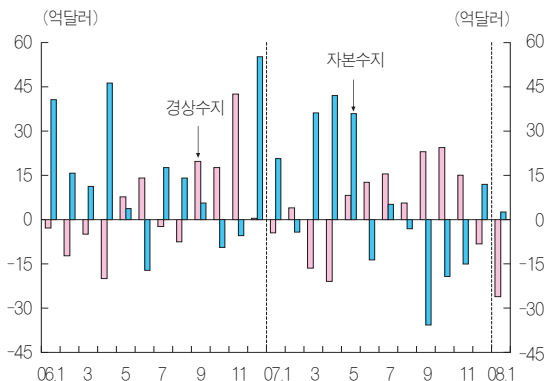


(資本收支)

자본수지는 2007년 상반기의 117.6억달러 흑자에서 하반기에는 55.2억달러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7년중 흑자규모가 전년의 179.7억달러에서 62.3억달러로 크게 축소되었다. 금년 1월에는 자본수지가 2.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I -15〉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구성항목별로 보면 직접투자수지는 내국인의 해외 현지법인 출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외국기업 및 해외금융기관의 국내법인에 대한 직접투자는 축소되면서 98.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증권투자수지는 외국인 국내채권투자와 내국인 해외채권투자자금 회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자금 회수와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가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85.7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한편 기타투자수지는 예금은행의 해외단기차입을 중심으로 138.1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라. 地方經濟 動向

〈표 I-9〉

지방¹⁾ 생산관련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1월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제조업 생산지수	8.5	9.9	7.1	7.5	5.3	9.8	13.7
(인천경기권)	12.0	13.7	10.5	8.2	4.3	11.9	21.7
(부산울산경남권)	5.9	6.2	5.7	5.1	5.5	4.6	7.1
(대전충청권)	17.9	22.5	13.8	11.0	9.6	12.3	11.9
(광주전라권)	6.6	5.4	7.7	5.7	7.7	3.8	2.2
(대구경북권)	0.0	-0.1	0.1	13.7	10.1	17.1	13.8
비제조업매출BSI ²⁾	83	84	83	86	84	88	87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6.4	6.9	5.9	5.8	5.3	6.2	12.5
건축허가면적	18.3	10.1	25.9	6.7	-0.7	12.6	..
건축착공면적	7.1	3.8	10.5	14.4	18.5	10.4	..
건설수주액	5.4	-18.8	30.0	20.3	39.0	8.5	..

주 : 1) 서울 제외

2) BSI는 지수(기준치 = 100)

자료 :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통계청, 건설교통부, 각 시도

한국은행 12개 지역본부가 600여개 지방소재 기업,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및 지역경제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2007년 하반기중 지방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생산 증가세가 확대되고 서비스업 생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대체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생산은 하반기중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하여 상반기의 5.3%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및 인천경기권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라권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업은 대형소매점판매, 비제조업매출BSI 등의 움직임에 감안할 때 견실한 신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상반기의 5.3%에서 하반기중 6.2%, 금년 1월중 12.5%로 높아졌으며 비제조업매출BSI도 상반기의 84에서 하반기중 88, 금년 1월중 87로 상승하였다.

하반기중 건설활동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조기 사업추진의 영향으로 건축허가면적이 증가로 돌아섰으나 건축착공면적과 건설수주액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한편 하반기중 지방 고용사정은 실업률이 전년 동기의 3.0%에서 2.8%로 하락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년 1월에는 실업률이 전년동월의 3.3%에서 3.0%로 낮아졌으나 취업자수 증가폭은 비교적 크게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의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10〉

지방¹⁾ 고용관련 지표

	(만명, %)						
	2006			2007			2008 1월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취업자수 증감 ²⁾	31.2	32.5	29.9	30.4	30.9	30.0	27.3
(인천경기권)	22.9	21.3	24.6	20.2	20.6	19.7	20.0
(부산울산경남권)	2.9	3.6	2.1	3.9	4.2	3.5	4.5
(대전충청권)	4.5	4.4	4.7	6.4	6.1	6.6	4.2
(광주전라권)	0.3	0.4	0.3	2.6	3.0	2.2	2.2
(대구경북권)	-1.3	0.9	-3.4	-2.1	-3.2	-1.1	-3.1
실업률 ³⁾	3.2	3.3	3.0	3.0	3.2	2.8	3.0
경제활동참가율	61.6	61.3	61.8	61.5	61.4	61.7	59.8

주 : 1) 서울 제외

2) 전년동기대비 증감(월평균), 비농림어업 기준

3) 계절조정전

자료 : 통계청

3. 金融市場

〈표 I-11〉

주요 시장금리
(기말 기준)

	2005		2007				2008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콜(1일)	3.76	4.60	4.63	4.52	4.98	5.02	4.96	4.94
CD(91일)	4.09	4.86	4.94	5.00	5.35	5.82	5.50	5.18
CP(91일) ¹⁾	4.32	5.03	5.11	5.24	5.69	6.52	6.26	5.59
국고채(3년)	5.08	4.92	4.76	5.26	5.46	5.74	5.04	4.97
회사채(3년) ²⁾	5.52	5.29	5.19	5.66	5.97	6.77	6.28	6.14

주 : 1) 신용등급 A1 기준
2) 신용등급 AA- 기준
자료 : K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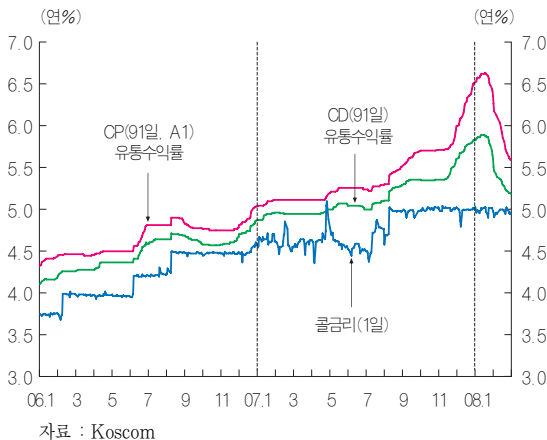
〈그림 I-16〉

장기시장금리



〈그림 I-17〉

단기시장금리



가. 金利 및 株價

(長期市場金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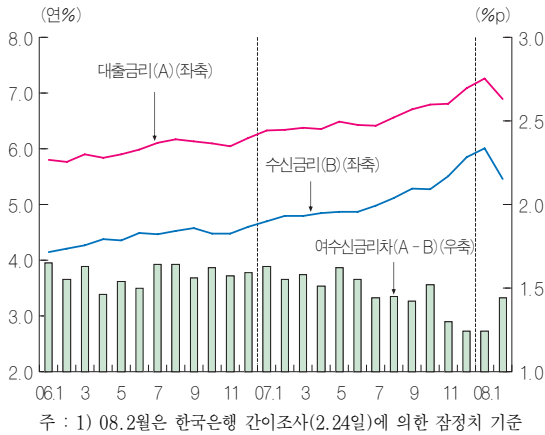
장기시장금리는 2007년 하반기중 콜금리 목표가 인상되고 은행들이 주식형펀드, CMA 등으로의 예금이탈에 대응하여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대출재원을 마련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7월 하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영향으로 일시 급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11월 중순 이후에는 통화·금리 스왑 시장의 불안이 겹치면서 급등하여 12월 7일에는 연중 최고치인 6.11%를 기록하였다. 금년 들어서는 미국 정책금리의 큰 폭 인하에 따른 콜금리 목표 하향조정 기대, 주식시장 부진으로 인한 은행예금의 대폭 증가 등으로 가파른 내림세로 돌아서 2월말 현재 4.97%까지 떨어졌다.

(短期市場金利)

단기시장금리도 장기시장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CD(91일) 유통수익률은 7월과 8월의 콜금리 목표 인상 이후에도 은행들이 대출자금 조달을 위해 CD 발행을 확대함에 따라 오름세를 지속하여 금년 1월 10일에는 5.89%까지 상승하였다. 1월 중순 이후에는 은행예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락세로 돌아서 2월말 현재 5.18%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장단기금리가 모두 하락하는 과정에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한편 콜금리(1일)는 한국은행이 글로벌 신용경색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수준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I-18>

은행 여수신금리¹⁾
(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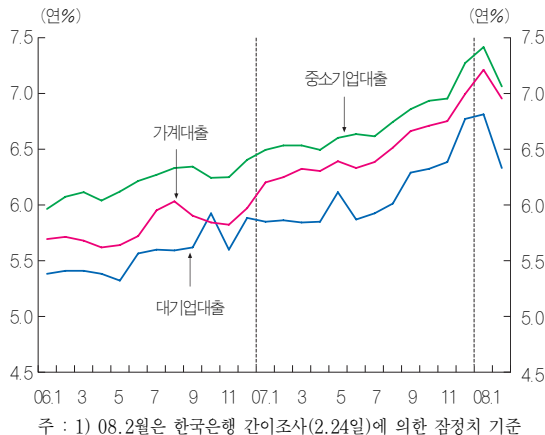


(金融機關 與受信金利)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는 시장금리 움직임을 시차를 두고 반영하면서 금년 1월까지 오름세를 보였으나 2월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08년 2월 현재 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6월에 비해 0.58% 포인트 상승한 5.45%, 은행의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0.47% 포인트 상승한 6.89%를 기록하였다. 여수신금리 격차는 금융기관간 대출경쟁에 따른 여수신금리의 상승폭 제한으로 축소되어 오다가 2월 들어 수신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지난해 6월중 1.55% 포인트였던 여수신금리차는 금년 1월중 1.24% 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가 2월중 1.44% 포인트로 늘어났다.

<그림 I-19>

차입주체별 은행 대출평균금리¹⁾
(신규취급액 기준)



차입주체별 대출금리 동향을 보면 대기업대출금리는 일부 건설사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으로, 가계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고정금리부 대출취급 증가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중소기업대출금리는 은행간 대출경쟁 등을 반영하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 다만 2월에는 시장금리 하락과 연동되어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가 모두 하락하였다.

<표 I-12>

주요 주식시장 지표

	2006	2007		2008	
		상반	하반	1월	2월
코스피지수 ¹⁾	1,434.5 (4.0)	1,743.6 (21.6)	1,897.1 (32.3)	1,624.7 (-14.4)	1,711.6 (-9.8)
거래량(만주) ²⁾	27,910	33,117	39,683	28,724	32,017
거래대금(억원) ²⁾	34,352	43,000	67,995	55,052	46,824
코스닥지수 ¹⁾	606.2 (-13.6)	778.7 (28.5)	704.2 (16.2)	608.8 (-13.5)	655.9 (-6.9)
거래량(만주) ²⁾	54,271	67,010	55,860	48,928	50,148
거래대금(억원) ²⁾	17,308	20,469	20,238	15,694	14,207

주 : 1) 기말 기준, ()내는 전년말대비 등락률(%)
2) 일평균
자료 : Koscom

(株價指數)

하반기중 주가는 급등락을 보이면서도 10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11월 이후에는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코스피지수는 7월말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급락하였으나 경기 상승세 지속, 시중자금의 증시 유입 확대 등으로 오름세를 회복하여 10월말에는 사상 최고치인 2,064.9를 기록하였다. 11월 이후에는 글로벌 증시 부진,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금년 2월말 현재 코스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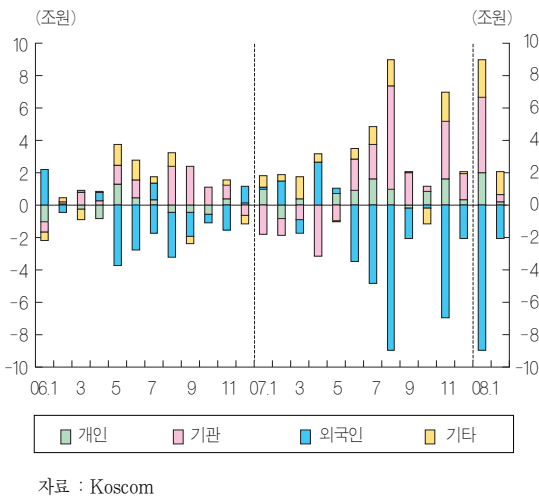
<그림 I-20>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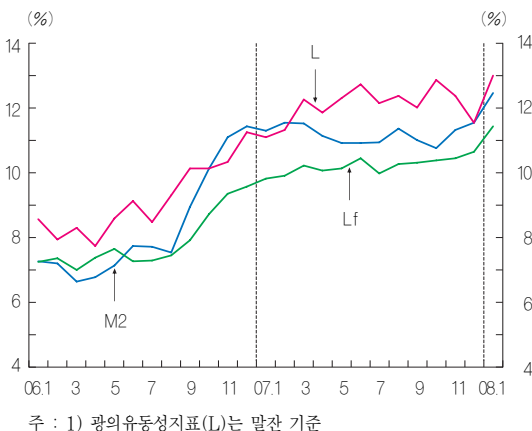
<그림 I-21>

투자자별 주식 매매수



<그림 I-22>

L, Lf 및 M2 증가율
(평잔 기준, 전년동월대비)



수는 1,711.6으로 지난해 6월말에 비해 1.8% 하락하였다.

코스닥지수는 7월 12일 연중 최고치인 828.2를 기록한 후 10월까지 800 전후에서 소폭 등락하였다. 11월 이후에는 코스피지수와 함께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금년 2월말 현재 코스닥지수는 655.9로 지난해 6월말에 비해 15.8% 떨어졌다.

투자자별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대규모 순매도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비율은 지난해 6월말 33.5%에서 금년 2월말에는 29.5%로 낮아졌다. 반면 국내 기관투자자는 자산운용사 및 연기금을 중심으로 순매수를 확대하였으며 개인투자자도 11월 이후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가매수에 나서면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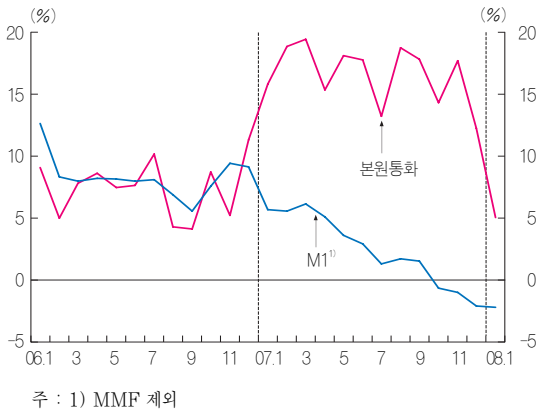
나. 通貨 및 金融機關 受信

(通貨增加率)

통화증가율은 2007년 하반기중에도 은행대출 확대, 통화스왑 등을 통한 외국인의 채권매입 증가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L(광의 유동성)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상반기의 11.9%에서 하반기중 12.3%로 높아졌다. Lf(금융기관 유동성) 및 M2(광의통화)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상반기와 비슷한 10.3% 및 11.1%를 나타내었으며 금년 1월에는 11.4% 및 12.5%로 상승하였다. 이와 달리 M1(협의통화, MMF 제외)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수시입출식예금 등 결제성예금의 부진을 반영하여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2006년 12월 지급준비율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중 크게 높아졌던 본원통

<그림 I-23>

M1¹⁾ 및 본원통화 증가율
(평잔 기준, 전년동월대비)



<그림 I-24>

통화유통속도 등락률
(평잔 기준, 전기대비)



<표 I-13>

예금취급기관 부문별 통화공급내역
(말잔 기준 증감액)

	2006			2007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국내신용	172.1	84.1	87.9	157.3	69.7	87.6
정부부문	-17.4	-5.1	-12.3	-42.2	-9.3	-32.9
민간부문	189.5	89.3	100.2	199.4	79.0	120.4
(대출금)	131.4	55.6	75.8	151.0	69.1	81.9
(유가증권) ¹⁾	30.3	21.8	8.4	7.8	8.2	-0.4
(주식 및 기타지분)	20.9	8.1	12.8	36.1	2.5	33.6
국외부문	-7.6	-9.0	1.3	48.2	15.6	32.6
기타부문	-18.4	-9.3	-9.1	-49.2	-16.8	-32.5
M2	127.8	60.8	67.0	124.3	55.4	69.0
M2 이외 금융상품 ²⁾	18.2	5.1	13.1	31.9	13.2	18.7

주 : 1) 회사채, CP 등
2)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인 정기예·적금, 금전신탁, 금융채 등

화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하반기중 15% 내외에서 등락을 보였다.

한편 2007년 하반기중 Lf 및 M2 기준 통화유통속도는 통화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部門別 通貨供給)

2007년 하반기중 예금취급기관의 부문별 통화공급내역을 보면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환수 규모가 확대된 반면 민간부문 및 국외부문에서는 통화공급이 크게 늘어났다.

하반기중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환수 규모는 세수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의 9.3조원에서 32.9조원으로 확대되었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규모는 중소기업대출 증가 및 주가 상승으로 상반기의 79.0조원에서 120.4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국외부문에서도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 등으로 통화공급 규모가 상반기중 15.6조원에서 32.6조원으로 늘어났다.

(銀行 受信)

2007년 하반기중 예금은행 수신(고유계정)은 17.1조원 늘어나 상반기 33.9조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신형태별로 보면 실세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예금 등 저원가성예금이 CMA 등으로의 자금이탈에 대응한 금리인상 및 신상품 개발 등에 힘입어 5.5조원의 증가로 돌아섰으나 정기예금은 주식형 금융상품으로의 자금이탈이 지속되면서 0.4조원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예금부진에 대응하여 은행들이 시장성 수신을 통해 대출재원 확보에 나서면서 CD가 14.2조원 그리고 은행채가 13.0조원 순발행되었다. 금년 1~2월에는 예금과 시장성수신이 모두 큰 폭으로

〈표 I-14〉

주요 금융기관 수신
(증감액 기준)

	2006			2007			2008 1~2월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은행수신 ¹⁾	73.1	33.1	40.0	51.0	33.9	17.1	21.1
실세요구불예금	4.2	0.7	3.5	2.1	-3.2	5.3	-5.2
저축성예금	21.5	7.4	14.2	-4.8	0.3	-5.1	16.6
(정기예금)	16.5	9.7	6.8	11.8	12.2	-0.4	23.5
(수시입출식예금)	10.8	1.9	8.9	-9.1	-9.3	0.2	-5.8
CD	11.4	2.1	9.3	28.2	14.0	14.2	10.6
FP ²⁾	4.4	3.0	1.3	-3.7	6.7	-10.4	-4.5
은행채	31.6	19.9	11.8	29.2	16.1	13.0	3.6
은행신탁	14.7	8.5	6.2	9.2	2.3	6.9	1.8
특정금전신탁	16.1	10.4	5.7	9.1	3.1	6.0	2.4
자산운용회사	30.3	18.0	12.3	61.8	23.7	38.1	37.4
MMF	-7.7	-6.0	-1.7	-10.4	1.1	-11.5	18.3
주식형펀드	20.3	13.8	6.5	69.9	17.2	52.7	14.8
채권형펀드	-1.0	-1.5	0.5	-9.6	-3.7	-5.9	1.7
혼합형펀드	5.6	5.2	0.4	-3.3	-4.8	1.5	1.2
신종펀드	13.1	6.5	6.6	15.3	14.0	1.3	1.4

주 : 1) 산업은행 수신 제외
2) 표지어음 포함
자료 : 업종별 협회

증가하였다. 주가 하락 영향 등으로 정기예금이 지난해 연간 증가규모의 2배에 가까운 23.5조원 늘었으며 CD 및 은행채도 상환자금 선확보 등으로 큰 폭의 순발행을 지속하였다.

은행신탁은 기업의 단기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하반기중 6.9조원 증가하였으며 금년 1~2월중에도 1.8조원 늘어났다.

(資産運用會社 受信)

하반기중 자산운용회사 수신은 주식형펀드를 중심으로 38.1조원 늘어나 상반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주식형펀드는 투자자들의 고수익 기대 등으로 국내외펀드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52.7조원 증가하였다. 이와 달리 상반기중 크게 늘어났던 신종펀드는 리츠펀드 등 일부 재간접펀드의 수익률 저조로 1.3조원 증가에 그쳤다. 그리고 MMF가 기업자금을 중심으로 11.5조원 줄어들었으며 채권형펀드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5.9조원 감소하였다. 금년 들어서도 자산운용회사 수신은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주식형펀드가 주가조정에 따른 신규자금유입 둔화에도 불구하고 재평가차익으로 크게 증가한 데 더해 MMF가 일부 기관의 여유자금이 유입되면서 큰 폭 증가로 돌아서고 채권형펀드도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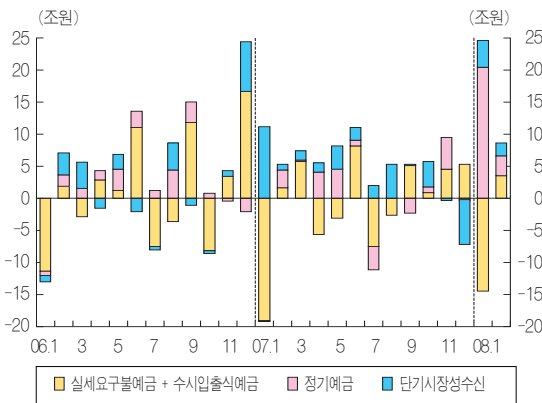
다. 企業資金 및 家計信用

(銀行의 企業貸出)

2007년 하반기중 은행의 기업대출(신탁계정 포함)은 상반기에 이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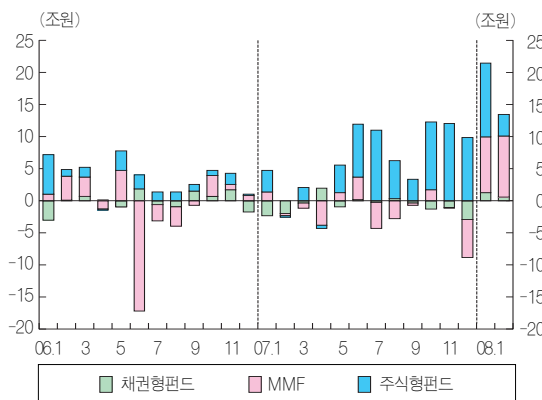
〈그림 I-25〉

예금은행 상품별 수신
(증감액 기준)



〈그림 I-26〉

자산운용회사 상품별 수신
(증감액 기준)



자료 : 자산운용협회

〈표 I-15〉

은행의 기업대출¹⁾
(증감액 기준)

(조원)

	2006			2007			2008 1~2월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대 기업	-1.3	-1.1	-0.2	8.5	2.6	5.9	4.7
중소기업	43.5	21.6	21.9	65.1	37.4	27.7	10.9
계	42.2	20.5	21.7	73.7	40.1	33.6	15.6
사모사채 ²⁾	16.6	9.3	7.3	-6.3	-1.4	-4.9	-0.8

주 : 1) 신탁계정 포함, 산업은행 제외
2) 공기법 발행분 포함, 외은지점 및 산업은행 제외

기업대출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수요 개발, 경기상승 등의 영향으로 27.7조원 증가하였다. 대기업대출은 시설자금 수요, 만기도래 사모사채의 대출전환 등으로 상반기보다 확대된 5.9조원 증가를 기록하였다. 반면 은행의 사모사채 인수는 보증기관 출연료 부과 추진(7.1일 시행) 등의 영향으로 4.9조원 감소하였다. 금년 들어서도 은행의 기업대출은 연말 신규대출 억제로 인한 자금수요 이월 및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분의 재취급과 부가세 납부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표 I-16〉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조원)

	2006			2007			2008 1~2월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회사채발행(순) ¹⁾	-2.5	-0.8	-1.7	-1.8	-1.3	-0.5	1.9
CP 발행(순) ²⁾	2.6	2.5	0.1	3.8	4.5	-0.7	4.6
주식 발행 ³⁾	5.0	2.9	2.1	6.5	2.0	4.5	0.8
직접금융계	5.1	4.6	0.6	8.6	5.1	3.4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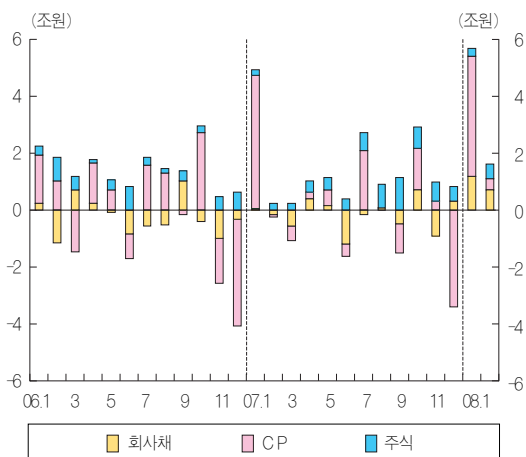
주 : 1)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회사채 기준(ABS 제외, P-CBO 포함)
2) 증권·종금사 및 은행신탁 취급분
3)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자료 : 금융감독원, 업종별 협회

(直接金融)

2007년 하반기중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순증액 기준)에 있어서는 주식발행이 증가하였으나 CP 및 회사채 발행은 부진하였다.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기업의 기업공개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유상증자를 중심으로 상반기의 2.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되었다. 회사채 및 CP는 시장금리 급등으로 우량기업의 발행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 및 부동산 개발금융(부동산 PF)관련 ABS 및 ABCP 부실화 가능성 등으로 비우량기업 발행물에 대한 매입수요도 위축되면서 0.5조원 및 0.7조원 순상환되었다. 다만 금년 들어서는 금리하락에 따른 발행수요 증가, 전년말 일시 상환분의 재취급 등으로 회사채 및 CP 모두 순발행을 나타내었다.

〈그림 I-27〉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증감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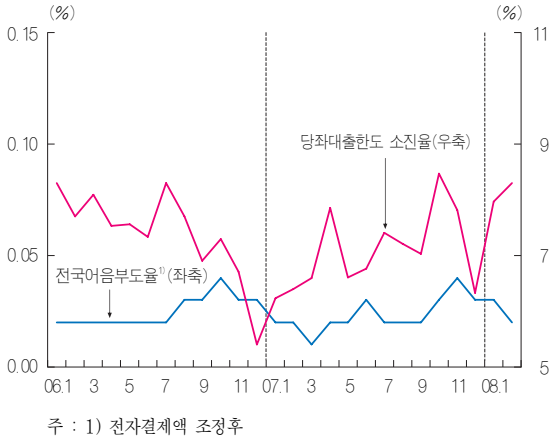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업종별 협회

(企業資金事情)

하반기중에도 기업자금사정은 양호하였다. 어음부도율(전자결제액 조정후)이 0.02~0.04%에 그쳤으며 기업의 긴급 자금수요를 나타내는 당좌

〈그림 I-28〉

주요 기업자금사정지표



대출한도 소진율도 7% 내외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상반기중 1.3%에서 하반기에는 1.2%로 더욱 낮아졌다.

(家計信用)

가계신용은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저조하였으나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상반기의 4.6조원에서 12.9조원으로 확대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대출도 농·수협협회 상호금융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중 17.8조원 늘어나 전년동기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신용카드회사 및 할부금융회사 등의 판매신용도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확대된 3.6조원 증가하였다.

〈표 I-17〉

가계신용
(증감액 기준)

	2006			2007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은행대출	40.7	17.5	23.2	17.5	4.6	12.9
비은행금융기관대출	16.3	5.7	10.5	27.5	9.7	17.8
판매신용	3.5	0.8	2.7	3.7	0.2	3.6
합계	60.5	24.0	36.5	48.7	14.5	34.2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4분기의 0.9%에서 4/4분기중 0.7%로 낮아졌으며 전업카드사의 연체율도 여신건전성 제고 노력 등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표 I-18〉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율¹⁾

	2005	2006	2007			
			I	II	III	IV
은행대출						
기업대출	2.2	1.6	1.3	1.3	1.2	1.2
가계대출	1.7	1.2	0.9	0.9	0.8	0.7
신용카드						
은행겸영사	4.1	2.4	1.9	1.8	1.6	1.7
전업사 ²⁾	7.7	5.2	4.4	4.1	3.7	3.5
	(13.5)	(8.1)	(5.6)	(5.1)	(4.5)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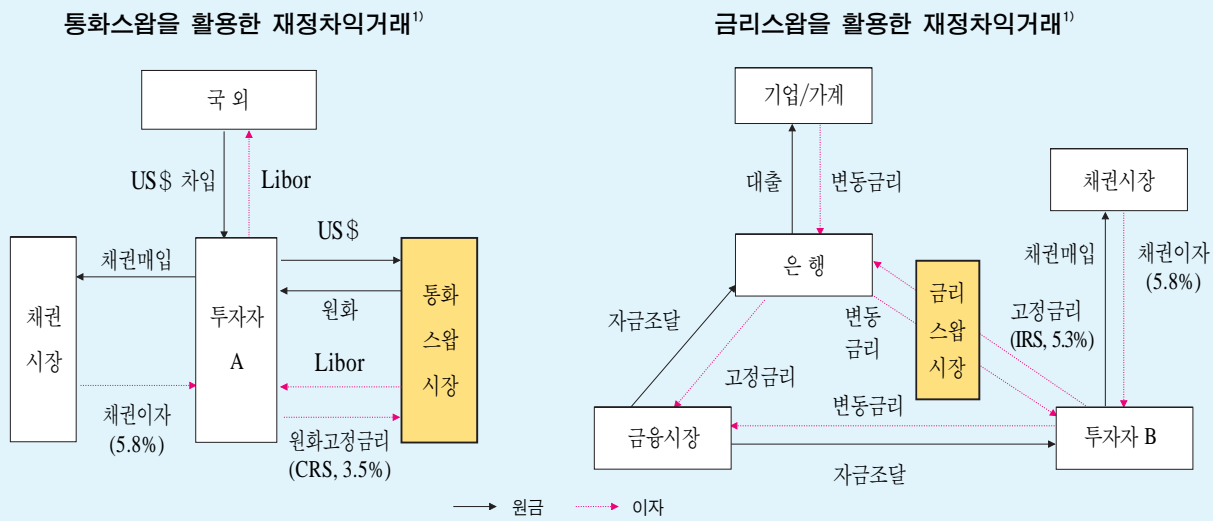
주 : 1) 월연체율의 단순평균(단, 분기말월 제외)
2) 분기말월 포함, ()내는 대환대출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 I - 2>

2007년 11월의 통화·금리 스왑시장 불안 원인

2007년 11월 통화·금리 스왑시장에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그 영향으로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이 200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통화·금리 스왑시장과 채권시장 불안의 발생은 스왑금리 하락 등으로 그 동안 누증되어 왔던 재정차익거래 포지션에서 큰 폭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단기내에 반대거래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통화스왑시장(CRS: Currency Swaps)에서는 2007년 들어 수출기업의 선물환매도에 해외주식투자자와 관련된 헤지목적의 선물환매도가 가세함에 따라 통화스왑을 통한 달러화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비례하여 국고채금리와 CRS금리간 금리차익을 겨냥한 채권·통화스왑시장 연계거래(국고채 매입/CRS금리 지급)도 늘어났다. 금리스왑시장(IRS: Interest Rate Swaps)에서는 은행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리스크를 헤지하면서 국고채금리와 IRS금리간 차익을 목적으로 한 채권·금리스왑시장 연계거래(국고채 매입/IRS금리 지급)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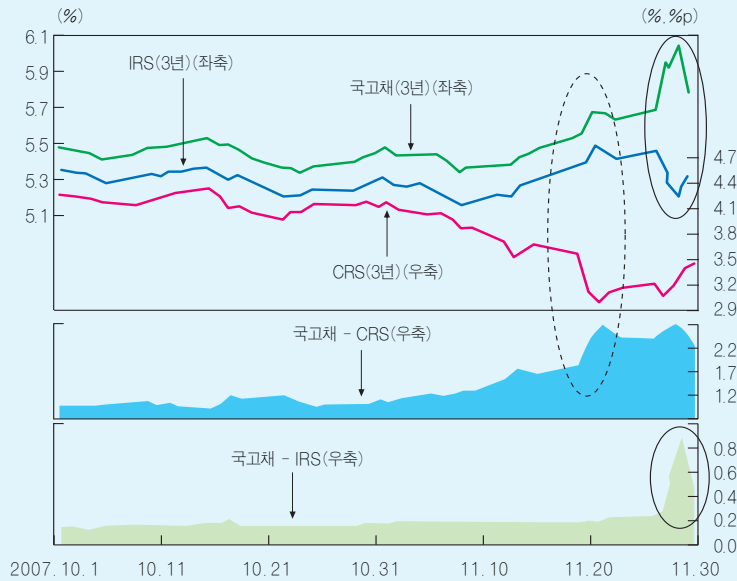
주 : 1) 투자자 A는 「채권매입/CRS지급」 거래를 통해 만기보유시 230bp(= 5.8% - 3.5%)를, 투자자 B는 「채권매입/IRS지급」 거래를 통해 만기보유시 50bp(= 5.8% - 5.3%)의 재정차익을 얻을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7년 11월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형 투자은행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신용리스크 회피 성향이 심화됨에 따라 CRS금리가 급락하였다. 그 결과 재정차익거래 포지션(국고채 매입/CRS금리 지급)에서 큰 폭의 평가손실¹⁾을 입은 일부 기관이 반대거래(국고채 매도/CRS금리 수취)에 나서면서 국고채금리가 크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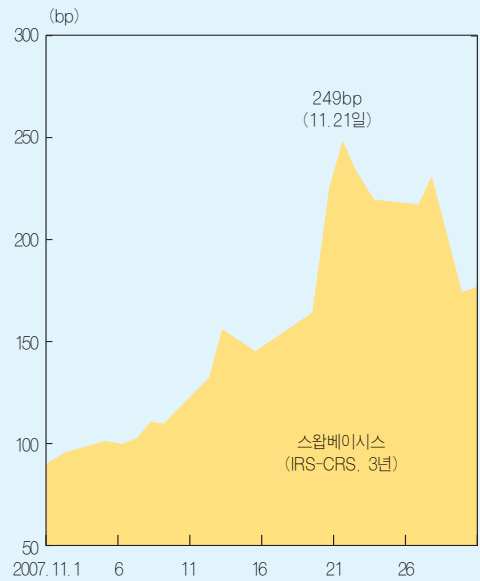
1) 투자자가 국고채 매입(5.8%, 1년)/CRS금리 지급(3.5%, 1년)의 재정차익거래 포지션을 보유하는 기간중에 국고채금리가 6.0%로 상승하고 CRS금리가 3.2%로 하락하면 국고채에서 20bp, CRS거래에서 30bp 등 총 50bp에 상응하는 시가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평가손실 허용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손실폭이 임계치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반대거래를 통해 포지션을 청산한다.

한편 11월 하순 들어 CRS금리 하락세가 일단락되는 등 통화스왑시장에서의 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크게 확대된 IRS금리와 CRS금리간 스프레드가 향후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스왑베이스스(IRS금리 수취/CRS금리 지급)를 통한 재정차익거래²⁾를 늘리면서 IRS금리가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더해 장기시장금리는 은행의 금융채 발행 확대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11월 중순까지 일정한 폭을 유지하던 국고채금리와 IRS금리간 스프레드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큰 폭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채권·금리스왑시장 연계 포지션(국고채 매입/IRS금리 지급)의 청산(국고채 매도/IRS금리 수취)이 집중되면서 11월 28~29일중 국고채(3년) 수익률이 34bp나 상승하였다.

국고채·CRS·IRS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스왑베이스스(IRS-CRS) 추이



2) 스왑베이스스 거래는 통화스왑(CRS)과 금리스왑(IRS)간 연계거래로서 투자자는 CRS지급거래(원화수취/달러화지급)를 통해 조달한 원화를 CD로 운용하고 이에 따른 금리변동리스크는 IRS수취거래(고정금리 수취/CD변동금리 지급)를 통해 헤지하게 된다. 이때 재정차익은 「스왑베이스스(IRS금리-CRS금리)」로 구해지며 보유기간중 스왑베이스스가 확대되면 평가손실이, 축소되면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참고 I - 3>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 배경

그동안 선물에 치중되었던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2007년 이후 현물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의 현물채권 매수규모(순)는 2007년 상반기중 3.7조원을 나타내어 2004~2006년중의 2.9조원을 상회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8.6조원으로 8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금년 1월중에도 3.4조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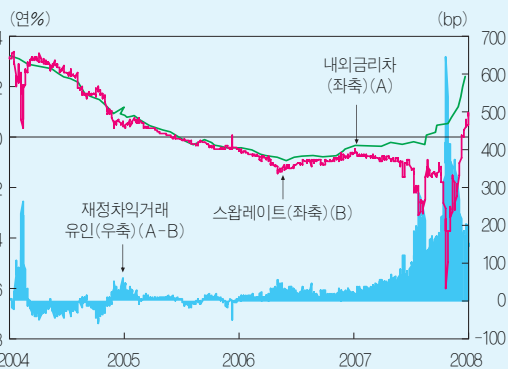
외국인의 현물채권 순매수 및 국내선물 거래량¹⁾

	2004	2005	2006	2007	(조원, %, 계약)			2008. 1월
					상반기	Ⅲ	Ⅳ	
현 물	1.4 (0.3)	0.2 (0.5)	1.3 (0.6)	32.3 (4.5)	3.7 (1.0)	11.7 (2.4)	16.9 (4.5)	3.4 (4.9)
선 물	7,160	8,884	11,876	12,904	13,831	11,906	12,223	12,725

주 : 1) 현물은 상장채권, 선물은 일평균 거래량 기준
()내는 기간말 현재 상장채권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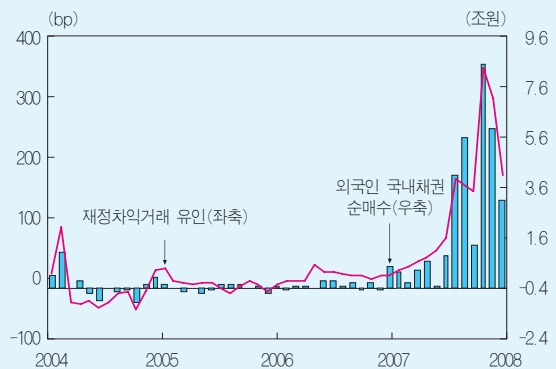
이와 같이 외국인의 현물채권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재정차익거래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재정차익거래 유인¹⁾을 내외금리차와 스왑레이트간의 격차로 구해보면 3개월물 기준으로 2006년말 26bp에서 2007년 7월말 100bp, 2007년말 323bp로 계속 확대되었다. 이는 미국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국내금리는 상승하면서 내외금리차가 확대되고 선물환매도 압력 지속 등으로 현물환율에 비해 선물환율의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스왑레이트의 마이너스(-)폭도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금년 들어서는 미국의 대폭적인 정책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내외금리차가 더욱 확대되었으나 스왑레이트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월말 현재 재정차익거래 유인은 154bp로 줄어들었다.

내외금리차¹⁾와 스왑레이트²⁾



주 : 1) CD-Libor(3개월물 기준)
2) (선물환율/현물환율-1)×100(연%), 선물환율은 3개월 NDF환율 기준

재정차익거래 유인¹⁾과 외국인의 국내채권 순매수



주 : 1) 3개월물 기준, 월평균

1) 재정차익거래 유인은 1년 이하의 경우 계약 기간중 이자교환이 없는 외환스왑(FX스왑)을 이용하여 내외금리차와 스왑레이트(선물환율/현물환율-1)간의 격차로, 1년 이상은 원리금을 모두 교환하는 통화스왑(CRS)을 활용하여 국내 채권금리와 CRS금리간 격차로 표시할 수 있으며 본 참고에서는 외환스왑을 이용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외국인의 현물채권 투자확대가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난해 4/4분기중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수요가 집중된 91일물 통안증권 등 일부 종목의 수익률은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금년 들어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2년물 통안증권²⁾ 등으로 이전하면서 이들 채권의 수익률이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주요 시장금리 변동 추이
(기말기준)

	2007. 9월(A)	12월(B)	2008. 1월(C)	B-A	C-B
CD(91일)	5.35	5.82	5.50	+0.47	-0.32
통안증권(91일)	5.17	5.20	5.09	+0.03	-0.11
통안증권(1년)	5.44	5.71	5.07	+0.27	-0.64
통안증권(2년)	5.54	6.10	5.09	+0.56	-1.01
국고채(3년)	5.46	5.74	5.04	+0.28	-0.70
국고채(5년)	5.52	5.78	5.11	+0.26	-0.67

2) 2년물 기준 재정차익거래 유인(통안증권금리-CRS금리)은 금년 들어 여타 만기물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만기별¹⁾ 재정차익거래 유인
(기말기준)

	2007. 9월	11월	12월	2008. 1월
3개월물	156	416	323	154
1년물	125	237	229	185
2년물	119	277	260	207
3년물	94	224	203	196

주 : 1) 3개월물은 CD, 1년물 및 2년물은 통안증권, 3년물은 국고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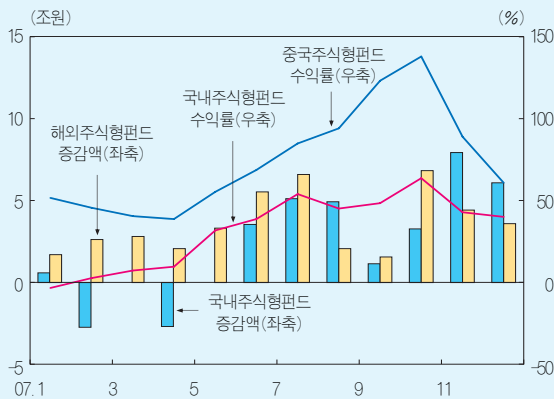
<참고 I-4>

2007년중 시중자금 흐름 변화

2007년중 시중자금 흐름의 특징으로는 ① 주식형펀드로의 자금 집중 ②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시입출식 금융상품 호조 ③ 은행 자금조달에서의 시장성수신 비중 증가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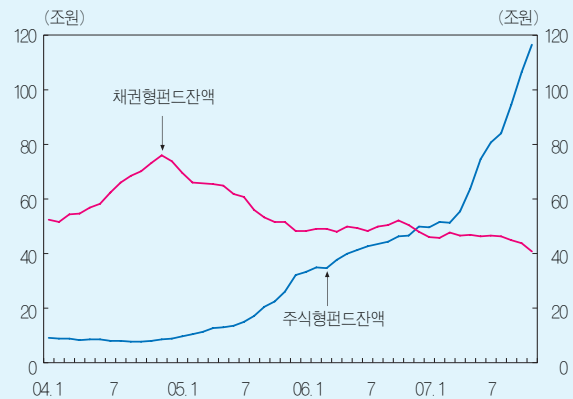
먼저 주식형펀드가 전년의 3배를 웃도는 69.9조원 늘어나 신장세가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중국, 인도 등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형펀드가 그간의 높은 수익률, 은행의 적극적인 판매노력 및 해외주식 투자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조치 등에 힘입어 44.2조원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ELD, ELS, ELF 등 주가연계금융상품으로도 5.8조원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주식형펀드와 달리 채권형펀드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큰 폭 감소하였다.

국내 및 해외 주식형펀드 증감액¹⁾ 및 수익률²⁾



주 : 1) 말잔 기준
2) 월말 기준 과거 1년간의 수익률
자료 : 한국펀드평가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 잔액¹⁾



주 : 1) 말잔 기준
자료 : 자산운용협회

다음으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 고금리 수시입출식 금융상품 판매에 나서면서 상당규모의 은행 결제성예금이 이들 금융상품으로 이동하였다. 증권사 CMA의 경우 은행 저축예금과 유사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함에 따라 수신잔액이 2006년말 8.7조원에서 2007년말 27.2조원으로 늘어났다.

증권사 CMA 수신

	(말잔기준)		(조원, 백만개)			
	2005	2006	2007			
			3월	6월	9월	12월
CMA	1.5	8.7	13.8	19.4	24.6	27.2
(계좌수)	0.5	1.4	2.2	2.9	3.9	4.9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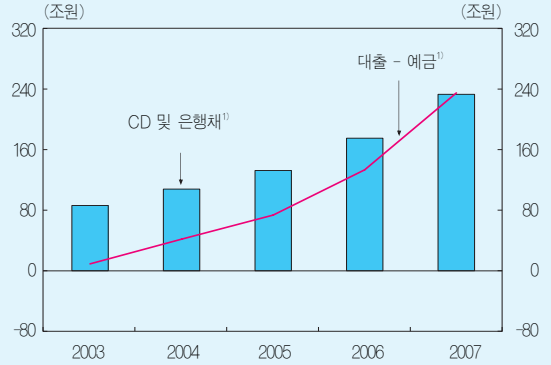
아울러 은행이 주식형펀드 및 비은행금융기관 수시입출식 금융상품으로의 자금이동에 따른 대출·예금 갭을 보전하면서 CD 및 은행채 발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07년중 은행의 CD, 은행채 등 시장성수신은 53.7조원 증가하였으며 은행 총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말의 27%에서 32%로 높아졌다.

은행수신 증감액¹⁾ 추이

	(조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수신	92.4	50.0	11.8	44.1	73.1	51.0
예금	51.6	30.7	-5.4	15.8	25.7	-2.7
(결제성예금)	⟨83.5⟩	⟨81.7⟩	⟨79.4⟩	⟨76.6⟩	⟨72.6⟩	⟨67.7⟩
(장기예금)	18.6	17.1	-5.3	30.3	15.0	-6.9
시장성수신 ²⁾	40.8	19.3	17.2	28.3	47.3	53.7
(CD)	6.9	11.6	9.3	16.4	11.4	28.2
(은행채)	27.6	10.2	12.4	8.2	31.6	29.2

주 : 1) 기간중 증감액
 2) CD, 은행채, RP, 표지어음 등
 3) ⟨ ⟩ 내는 은행 총수신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행의 (대출 - 예금) 갭 추이



주 : 1) 말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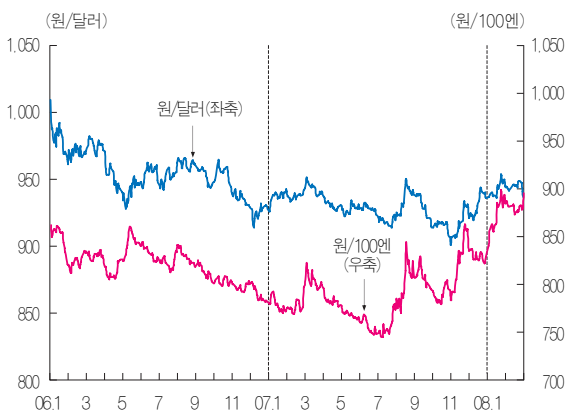
이와 같은 시중자금 흐름의 변화는 민간의 금융상품 선택폭 확대와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중자금이 특정 부문으로 지나치게 몰리게 되면 금융시장이 외생적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간 경쟁이 과열되면 가격기능의 원활한 작동이 제약되면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약화될 여지도 있다.

4. 外換市場

(換率)

<그림 I-29>

원/달러 및 원/엔¹⁾ 환율
(증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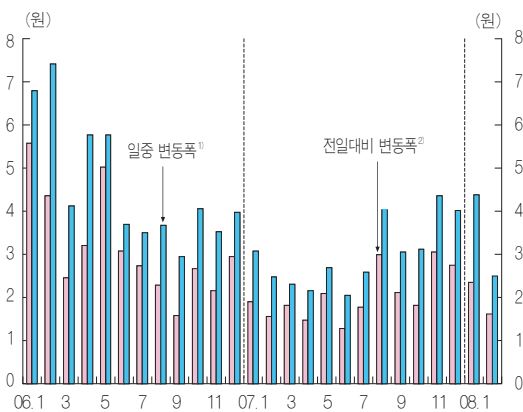


주 : 1) 한국의환은행 당일 최종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을 전후하여 그간의 하락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시기별로 보면 7월 하순경 수출호조에 따른 외환공급 증가 등으로 910원대까지 하락하였다가 8월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 등으로 950원대로 급등하였다. 그러나 8월 하순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국제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서 10월말에는 연중 최저 수준인 900.7원까지 떨어졌다. 11월 이후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리스크 회피성향 강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여 금년 1월 22일에는 954.0원까지 올랐다. 2월말 현재 원/달러 환율은 939.0원으로 지난해 6월말대비 1.6% 절하되었다.

<그림 I-30>

원/달러 환율 변동폭



주 : 1) (당일 최고가 - 당일 최저가)의 평균
2) (당일 증가 - 전일 증가)의 절대치 평균

2007년 하반기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 및 전일대비 변동폭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금년 1월중에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2월 들어서는 외환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면서 변동폭이 다소 축소되었다.

원/엔 환율은 하반기중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미 달러화에 대해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7월초 100엔당 744.8원까지 떨어졌던 원/엔 환율은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짐 등의 영향으로 8월 중순에는 840원대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글로벌 주가상승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완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10월 중순 원/엔 환율은 780원 수준을 하회하기도 하

〈표 I-19〉

외환보유액
(말잔 기준)

(억달러)

2005	2006	2007				2008
		3월	6월	9월	12월	
2,103.9	2,389.6	2,439.2	2,507.0	2,572.9	2,622.2	2,623.6

〈표 I-20〉

외평채 및 국내은행 단기차입금 가산금리

(bp)

	2006		2007				2008	
	12월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외평채(2013년) ¹⁾	58	57	58	82	118	120	131	
단기차입금 ²⁾	7	5	7	18	31	25	21	

주 : 1) 미 국채 기준 가산금리(Spread), 기말 기준
2) LIBOR 기준 가산금리(Spread), 기간 평균

〈표 I-21〉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변화¹⁾

	S&P	Moody's	Fitch
1997	A+(10.24) A-(11.25) BBB-(12.10) B+(12.22)	A3(11.28) Baa2(12.11) Ba1(12.21)	A+(11.18) A(12.3) BBB-(12.11) B-(12.23)
1998	BB+(2.17)	-	BB+(2.2)
1999	BBB-(1.25) BBB(11.11)	Baa3(2.12) Baa2(12.16)	BBB-(1.19) BBB(6.24)
2000	-	-	BBB+(3.30)
2001	BBB+(11.13)	-	-
2002	A-(7.24.전망·S) ²⁾	A3(3.28) 전망상향조정 (S→P, 11.15) ²⁾	A(6.27.전망·S) ²⁾
2003	-	전망하향조정 (P→N, 2.11) ²⁾	-
2004	-	전망상향조정 (N→S, 6.11) ²⁾	-
2005	A(7.27.전망·S) ²⁾	-	A+(10.24.전망·S) ²⁾
2006	-	전망상향조정 (S→P, 4.25) ²⁾	-
2007	-	A2(7.25.전망·S) ²⁾	-

주 : 1) ()내는 발표일자
2) P(Positive), S(Stable), N(Negative)

였으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월말 현재 원/엔 환율은 100엔당 895.6원으로 지난해 6월말에 비해 16.4% 절하되었다.

(外換保有額)

외환보유액은 보유외환 운용수익이 늘어나고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6월말의 2,507.0억달러에서 금년 2월말에는 2,623.6억달러로 늘어났다. 2008년 2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구성은 유가증권 2,269.9억달러(86.5%), 예치금 349.3억달러(13.3%), IMF포지션 3.0억달러(0.1%)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海外借入與件)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2013년 만기 기준)는 지난해 상반기중 50bp대 후반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신흥시장국 채권의 가산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금년 2월말에는 131bp로 높아졌다. 국내은행의 단기차입금 가산금리는 지난해 상반기중 3~7bp에서 12월에는 31bp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금년 1월 25bp로 낮아진 데 이어 2월에는 21bp로 하락하였다.

한편 지난해 7월 25일 Moody's사는 안정적 재정 관리, 양호한 거시경제 성과,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다.

5. 物價

〈표 I-22〉

소비자물가 등락률¹⁾
(전년동기대비)

	2006			2007			2008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1~2월
소 비 자 물 가	2.2 (2.1)	2.2 (1.5)	2.3 (0.6)	2.5 (3.6)	2.2 (1.9)	2.9 (1.6)	3.7 (0.8)
농 축 수 산 물	-0.1 (1.4)	-1.1 (-1.3)	0.8 (2.8)	1.9 (2.6)	1.7 (-0.4)	2.2 (3.0)	0.7 (1.3)
공 업 제 품	2.0 (0.7)	2.4 (1.2)	1.5 (-0.5)	2.0 (4.8)	1.1 (2.1)	2.7 (2.7)	5.7 (0.8)
(석유류제품)	6.5 (-1.9)	11.3 (4.2)	2.2 (-5.9)	3.0 (17.5)	-0.8 (7.9)	6.7 (8.9)	19.7 (1.4)
(기타공업제품) ²⁾	1.1 (1.3)	0.7 (0.6)	1.4 (0.7)	1.6 (2.1)	1.5 (0.8)	1.9 (1.3)	2.7 (0.8)
서 비 스	2.7 (2.9)	2.5 (2.0)	2.9 (0.9)	2.9 (3.0)	2.8 (2.1)	3.0 (0.9)	3.2 (0.7)
(집 세)	0.4 (1.3)	0.0 (0.3)	0.8 (1.0)	1.8 (1.9)	1.7 (0.9)	1.9 (1.0)	1.9 (0.4)
(공 공 요 금)	3.5 (3.9)	2.9 (2.1)	4.0 (1.7)	3.1 (3.3)	3.0 (1.7)	3.1 (1.6)	3.1 (0.3)
(개 인 서 비 스)	3.0 (2.9)	3.0 (2.5)	3.0 (0.4)	3.1 (3.3)	3.1 (2.6)	3.2 (0.7)	3.5 (1.1)
생 활 물 가	3.1 (2.6)	3.1 (2.1)	3.1 (0.5)	3.1 (4.8)	2.6 (2.7)	3.7 (2.1)	4.7 (2.6)
근원인플레이션	1.8 (2.1)	1.6 (1.5)	2.1 (0.6)	2.4 (2.4)	2.3 (1.7)	2.3 (0.8)	2.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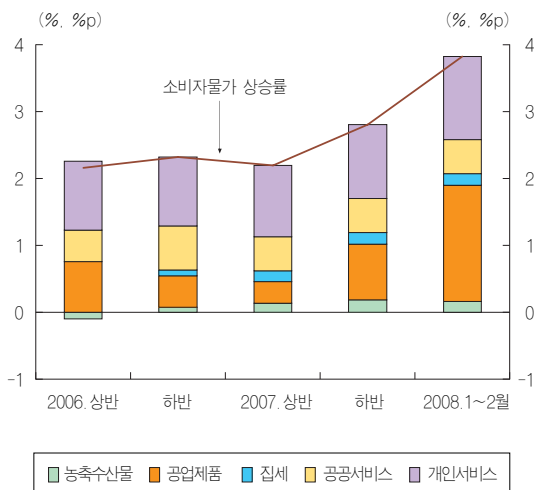
주 : 1) ()내는 기말월의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2) 석유류 제외

자료 : 통계청

〈그림 I-31〉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전년동기대비)



(消費者物價)

소비자물가는 2007년 10월 이후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기간별로 보면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3% 상승에 그쳐 중기물가안정목표범위(3.0±0.5%)의 하한을 밑돌았다. 4/4분기에는 고유가 등 비용요인에 더해 그간의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상승률이 10월 3.0%, 11월 3.5%, 12월 3.6%로 계속 높아져 분기 전체로는 3.3% 그리고 하반기중으로는 2.9%를 기록하였다. 금년 1월과 2월에도 각각 3.9% 및 3.6% 올라 지난해 12월 이후 목표범위의 상한을 웃돌았다.

하반기중 품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공업제품가격은 석유류제품가격이 전년동기대비 6.7% 상승한 데 주도되어 상승률이 상반기의 1.1%에서 2.7%로 크게 높아졌다. 농축수산물가격은 여름철 호우의 영향 등으로 그리고 서비스요금은 집세,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등을 중심으로 각각 2.2% 및 3.0% 올라 상반기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품목별 기여도를 구해보면 석유류제품을 중심으로 공업제품가격이 상반기중 0.32% 포인트에서 하반기에는 0.83% 포인트로 높아져 전체 물가오름세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이 1.07% 포인트에서 1.10% 포인트로, 농축수산물가격이 0.14% 포인트에서 0.19% 포인트로, 집세가 0.16% 포인트에서 0.18% 포인트로 상승하였다. 공공서비스요금은 0.51% 포인트로 상반기와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I-23〉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간 차이

2004	2005	2006	2007			2008
			연간	상반	하반	1~2월
0.7	0.5	0.4	0.1	-0.1	0.6	0.9

〈표 I-24〉

주요 품목별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대비)

	2002~06	2007			2008
		연간	상반	하반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0	2.5	2.2	2.9	3.7
공급 충격 품목 ¹⁾	5.4	4.1	1.8	6.4	10.5
내수 관련 품목 ²⁾	2.5	2.3	2.3	2.3	2.5
기 타 품 목 ³⁾	2.8	2.3	2.2	2.5	3.6
근원인플레이션율	2.6	2.4	2.3	2.3	2.8

주 : 1) 곡물이외 농산물, 석유류, 도시가스 등
 2) 섬유제품, 출판물, 가사잡화 등 내수관련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집세 등
 3) 가공식품, 담배, 금반지 등 일부 공업제품, 도시가스제의 공공요금, 곡물 및 축수산물 등
 자료 : 통계청

〈표 I-25〉

생산자물가 등락률¹⁾
(전년동기대비)

	2006			2007			2008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1~2월
생 산 자 물 가	2.3 (2.2)	2.1 (2.1)	2.5 (0.1)	2.7 (5.1)	2.2 (2.6)	3.2 (2.4)	6.4 (1.9)
상 품	2.6 (2.4)	2.3 (2.7)	2.9 (-0.4)	2.8 (6.0)	2.1 (2.9)	3.3 (2.9)	7.7 (2.2)
(농림수산물)	-5.0 (2.2)	-7.7 (-2.4)	-2.2 (4.7)	3.4 (-1.7)	4.7 (2.3)	2.2 (-4.0)	-3.1 (3.8)
(공 산 품)	2.9 (2.0)	2.9 (3.0)	2.8 (-1.0)	2.6 (6.5)	1.8 (3.0)	3.4 (3.4)	8.8 (2.4)
(전력수도가스)	7.3 (6.0)	6.1 (3.4)	8.4 (2.6)	3.6 (6.4)	3.6 (1.7)	3.4 (4.6)	4.7 (-0.6)
서 비 스	1.8 (1.8)	1.7 (0.7)	1.9 (1.1)	2.6 (3.0)	2.4 (1.7)	2.8 (1.3)	3.0 (0.8)

주 : 1) ()내는 기말월의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한편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필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상반기의 2.6%에서 하반기에는 3.7%로 그리고 금년 1~2월중에는 4.7%로 높아졌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격차도 상반기의 0.4% 포인트에서 0.8% 포인트 및 1.0% 포인트로 확대되었다.

(根源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에서 곡물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지난해 3/4분기 2.3%, 4/4분기 2.4% 그리고 하반기 전체로는 상반기와 같은 2.3% 상승에 그쳤으나 금년 1~2월중 상승률은 2.8%로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간 격차는 근원인플레이션에 포함되지 않는 석유류제품 등의 가격상승률이 하반기 이후 크게 높아지면서 지난해 상반기 -0.1% 포인트에서 하반기 0.6% 포인트, 그리고 금년 1~2월중에는 0.9% 포인트로 확대되었다.

(生産者物價)

2007년 하반기중 생산자물가는 3.2% 상승하여 상반기의 2.2%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기간별로 보면 3/4분기에는 2.0% 상승에 그쳤으나 4/4분기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4.3%로 높아졌다. 금년 1~2월중에는 공산품가격의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상승률이 6.4%로 더욱 높아졌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가격이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하반기중 3.4% 상승하여 상반기의 1.8%를 크게 웃돌았으며 서비스요금도 화물운송 및 금융서비스 가격의 인상으로 상반기보다 높은 2.8%의 상승률을 보였다. 농림수산물가격은 곡물류 및 과실류 가격의 상승세 둔화로 그리고 전력·수도·가스요금은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상반기보다 낮은 2.2% 및 3.4%의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輸出入物價)

하반기중 수출물가(원화 기준)는 전년동기대비 1.0% 하락하여 상반기에 이어 내림세를 지속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3/4분기에는 원화가 미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4/4분기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오름세로 돌아섰으며 금년 1~2월중에는 6.7% 상승하였다.

수입물가(원화 기준)는 원자재 및 농산물의 국제가격 상승에 11월 이후의 원화 가치 절하 효과가 가세하면서 상승률이 상반기의 2.2%에서 하반기 6.8%, 금년 1~2월중에는 21.7%로 급속히 높아졌다.

환율 변동분을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으로 하반기중 수출물가는 0.3% 오르는 데 그쳤으며 수입물가는 8.7% 상승하였다.

(不動産價格)

주택가격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도 오름세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중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기말월대비 1.4%,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은 1.5%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매매가격은 다소 큰 폭으로 올라 하반기중 3.4% 상승하였다. 한편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은 1.0%를 나타내었다.

토지가격은 일부 수도권 개발호재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여 하반기중 2.1% 상승에 머물렀다.

<표 I-26>

수출입물가 등락률¹⁾
(전년동기대비)

		2006						2007			2008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1~2월			
수출물가	원화 기준	-8.2	-8.9	-7.6	-2.1	-3.2	-1.0	6.7	(-7.5)	(-4.4)	(-3.3)	(3.4)	(0.5)	(2.9)	(3.0)
	계약통화기준	-1.7	-3.6	0.1	-0.3	-0.9	0.3	4.3	(1.0)	(1.6)	(-0.7)	(1.8)	(0.3)	(1.5)	(1.2)
	원화 기준	0.9	2.0	0.0	4.5	2.2	6.8	21.7	(-0.6)	(2.5)	(-3.1)	(15.6)	(4.8)	(10.3)	(5.8)
수입물가	(원자재)	15.7	26.4	6.9	7.0	-1.3	15.2	49.0	(2.7)	(11.4)	(-7.7)	(33.4)	(7.9)	(23.7)	(7.7)
	(중간재)	-4.0	-6.2	-1.7	4.5	5.6	3.5	11.2	(-0.3)	(-0.1)	(-0.2)	(8.2)	(4.2)	(3.9)	(5.3)
	(자본재)	-9.6	-10.1	-9.1	-2.6	-3.9	-1.3	4.8	(-8.7)	(-5.6)	(-3.2)	(2.5)	(-1.5)	(4.1)	(2.4)
	(소비재)	-4.4	-3.6	-5.2	1.2	0.1	2.3	8.5	(-6.1)	(-4.0)	(-2.2)	(8.1)	(3.0)	(4.9)	(3.7)
	계약통화기준	8.8	8.7	8.8	7.0	5.3	8.7	19.0	(9.0)	(9.1)	(0.0)	(14.1)	(4.8)	(8.9)	(3.8)
환율 ²⁾		+7.2	+5.4	+9.1	+2.8	+3.1	+2.4	-0.7							

주 : 1) ()내는 기말월의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2) 매미달러환율(기간 평균, 종가 기준)의 전년동기대비 절상(+), 절하(-)율

<표 I-27>

주택, 전세 및 토지가격 등락률
(전기말월대비)

		2006			2007			2008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1~2월
주택매매		11.6	3.9	7.4	3.1	1.7	1.4	0.6
아파트		13.8	4.8	8.5	2.1	1.3	0.8	0.4
서울		24.1	9.0	13.8	3.6	2.1	1.5	1.0
(강남)		27.6	12.9	13.1	0.5	0.4	0.1	0.2
(강북)		19.0	3.5	15.0	8.3	4.7	3.4	2.0
주택전세		6.5	2.6	3.8	2.6	1.6	1.0	0.4
아파트		7.6	3.3	4.2	1.9	1.5	0.4	0.3
서울		11.5	5.3	5.8	2.2	2.0	0.2	0.5
토지		5.6	2.8	2.8	3.9	1.8	2.1	0.4 ¹⁾

주 : 1) 1월 기준
자료 : 국민은행, 건설교통부

〈표 I-28〉

기대인플레이션¹⁾

	2007					2008
	I	II	III	IV	I	
전문가 ²⁾	2.9	2.5	2.4	2.7	2.8	3.4
일반인 ³⁾	2.9	3.0	2.9	2.8	3.0	3.3

주 : 1) 경제연구소,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생명보험회사, 외국계 투자은행 등에 소속된 경제전망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분기별(전문가) 또는 월별(일반인)로 설문조사한 결과
 2) 매분기 첫 월에 조사한 향후 6개월간 물가상승률
 3)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로 매월 조사치의 분기평균, 단 2008년 1/4분기는 1~2월 조사치의 평균

(期待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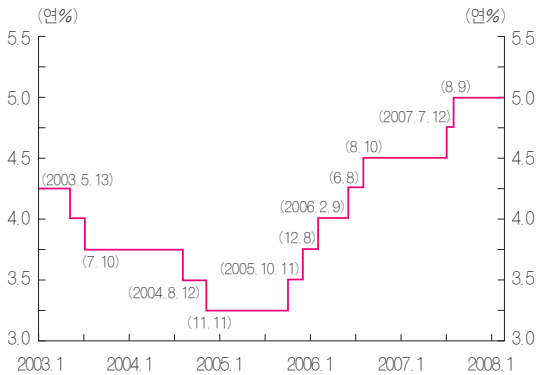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경제주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2/4분기의 2.4%에서 4/4분기에는 2.8%로 상승하였으며 금년 1/4분기에는 3.4%로 한층 높아졌다. 일반인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비슷한 2.8~3.0% 수준을 보였으나 금년 1/4분기에는 3.3%로 상승하였다.

Ⅱ. 通貨信用政策 運營

1. 콜金利 目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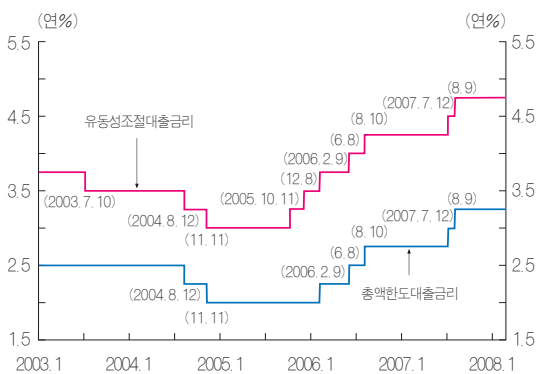
〈그림 Ⅱ- 1〉

콜金利 目標 조정



〈그림 Ⅱ- 2〉

총액한도대출금리 및 유동성조절대출¹⁾금리 조정



주 : 1) 2008년 3월 7일자로 폐지

2007년 하반기 이후 한국은행은 실물경제의 개선추세가 이어지도록 하면서도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시중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2/4분기부터 실물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콜金利 目標을 연 5.0%로 인상하였다. 9월 이후에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등 거시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콜金利 目標을 연 5.0%에서 유지하였다.

(2007년 7월과 8월의 콜金利 目標 引上)

한국은행은 2007년 7월과 8월 콜金利 目標을 각각 0.25% 포인트 올려 연 5.0%로 조정하였다. 콜金利 目標 인상에 맞추어 총액한도대출금리를 연 2.75%에서 3.25%로, 유동성조절대출금리를 연 4.25%에서 4.75%로 각각 인상하였다.

이와 같이 콜金利 目標을 인상 조정한 것은 시중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2/4분기부터 실물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물가상승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국내경기는 고유가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양호한 성장세 등에 힘입어 상승기조를 지속하였다.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는

〈표 II - 1〉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2006	2007					2008 1월
		연간	I	II	III	IV	
GDP 성장률 ¹⁾	5.1	5.0	1.0 (4.0)	1.7 (4.9)	1.5 (5.1)	1.6 (5.7)	-
수출(통관)	14.4	14.1	14.6	14.1	9.4	18.2	15.1
수입(통관)	18.4	15.3	13.4	14.7	7.3	25.9	31.0
소비재판매	4.1	5.3	5.7	4.2	7.1	4.5	4.7
설비투자주계	8.9	8.6	12.8	11.9	0.7	9.2	-0.9
건설기성액	2.6	6.6	7.9	6.0	4.4	8.0	10.9
제조업생산	8.6	7.0	4.1	6.3	6.1	11.2	12.1
서비스업생산	5.5	6.4	5.4	6.1	7.2	6.8	7.7

주 : 1) 계절조정후 전기대비, ()내는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관세청

가운데 내수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2007년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7%(전년동기대비 4.9%)로 크게 높아졌다.

다음으로 시중유동성의 높은 증가세 지속으로 중장기적인 물가안정 기반의 약화가 우려되었다. 시중유동성은 2007년 상반기 들어서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Lf(금융기관 유동성) 증가율이 2007년 3월 이후 10%를 넘어서고 M2(광의통화) 증가율도 상반기중 11% 내외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2007년 9월 이후 콜金利 目標 現水準 維持)

〈표 II - 2〉

콜金利 目標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¹⁾

예측대상기간	2007. IV			2008. I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인상	77	6	3	27	14	9	0
유지	21	89	89	61	75	88	68
인하	2	5	8	12	11	3	32

주 : 1) 매월 금리정책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직전 월 말에 향후 콜金利 目標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대하여 금융기관, 일반기업, 대학, 경제연구소 및 기자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국은행은 2007년 9월 이후 콜金利 目標를 연 5.0%에서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두 차례의 콜金利 目標 인상으로 금융완화의 정도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 데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거시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II - 3〉

국제유가¹⁾



주 : 1) Brent油기준
자료 : Bloomberg

이와 같은 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먼저 실물경제 활동을 보면 수출 호조와 소비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GDP 성장률이 3/4분기 전기대비 1.5%(전년동기대비 5.1%), 4/4분기 1.6%(전년동기대비 5.7%)를 나타내는 등 국내경기의 상승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경기 부진,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성장의 하향리스크가 증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고유가 등 비용요인에 더해 그간의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3/4분기중 2.3% 상승에 그쳤으나 4/4분기에는 3.3%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지난

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를 보인 데 이어 금년 1월과 2월에도 목표범위의 상한을 웃도는 3.9% 및 3.6%를 기록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중소기업 대출도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수요 개발, 경기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통화스왑 등을 통한 외국인의 채권매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통화증가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Lf 증가율은 3/4분기 이후 10%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M2 증가율도 11% 초반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금년 들어서는 Lf 증가율과 M2 증가율이 11% 중반 및 12% 중반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 - 4〉

콜금리 목표 및 시장금리



장단기 시장금리는 지난해 7월과 8월의 콜금리 목표 인상 이후에도 은행들이 주식형펀드, CMA 등으로의 예금이탈에 대응하여 CD·은행채 발행 확대 등을 통해 대출재원을 마련하면서 연말까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장기시장금리는 11월중 통화·금리 스왑시장의 불안이 겹치면서 일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년 들어서는 미국 정책금리 큰 폭 인하에 따른 콜금리 목표 하향조정 기대, 주식시장 부진으로 인한 은행예금의 대폭 증가 등으로 장단기금리가 모두 빠르게 하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주가는 경기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10월말에는 사상 최고치인 2,064.9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11월 이후에는 글로벌 증시 불안,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영향 등으로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다.

<표 II - 3>

관리대상 통합재정수지

(조원)

	2006			2007		
	연간	상반	하반	연간 ¹⁾	상반	하반 ¹⁾
재정 수입(A)	209.6	106.4	103.2	243.6	124.8	118.8
재정 지출(B)	205.9	106.5	99.4	209.8	113.4	96.4
조정 ²⁾ (C)	14.4	8.2	6.2	30.2	16.4	13.7
관리대상 통합 재정수지(A-B-C)	-10.8	-8.4	-2.4	3.6	-5.1	8.7

주 : 1)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자료 : 기획재정부

<그림 II - 5>

원/달러 환율



<표 II - 4>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및 이자지급액

(조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간	상반	하반 1~2월
발행잔액 ¹⁾	105.5	142.8	155.2	158.4	150.3	158.2	150.3
	(21.2)	(37.3)	(12.5)	(3.2)	(-8.1)	(-0.2)	(-7.9)
이자지급액	5.0	5.6	6.1	6.8	7.5	3.7	3.8

주 : 1) 말잔 기준, ()내는 전기말대비 증감액

<표 II - 5>

본원통화 및 유동성 조절

(평잔 기준)

(조원)

	2004.12	2005.12	2006.12	2007.12	2008.2
본원통화 수요(A)	37.4	40.3	44.9	50.4	52.6
본원통화 공급(B)	179.1	195.3	209.5	205.6	204.1
정 부	-1.9	1.0	1.9	-4.9	-7.2
민 간 ¹⁾	-32.6	-39.9	-48.2	-59.5	-58.8
국 외 ¹⁾	213.9	214.9	227.0	240.2	247.0
기 타	-0.2	19.3	28.8	29.8	23.1
유동성조절(B-A)	141.6	155.0	164.6	155.2	151.5
통화안정증권	142.3	154.5	159.9	152.1	144.9
RP 순매도	-0.7	0.5	4.7	3.1	6.6

주 : 1) 외화예탁금 및 외화예수금은 국외부문에 포함

(財政·外換政策과의 調和的 運營)

한국은행은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와 환율의 움직임에도 유의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였다. 하반기중 관리대상 통합재정수지는 세수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당초 예상과 달리 흑자를 기록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2007년 8월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에 따른 대규모 역외선물환(NDF) 매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폭 유출 등의 영향으로 950.4원까지 급등하였다가 8월 하순 이후 미국의 경기부진 우려,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큰 폭 하락하여 10월말에는 900.7원까지 떨어졌다. 11월 이후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리스크 회피성향이 강화되고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여 금년 2월말 현재 939.0원을 기록하였다.

(콜金利 目標를 維持하기 위한 流動性調節)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조절하였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금년 2월말 현재 146.0조원으로 지난해 6월말에 비해 12.2조원 감소하였다. 이처럼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줄어든 것은 총액대출 한도 축소, 세수호조에 따른 재정수지 흑자 등으로 유동성 환수 필요규모가 줄어든 데다 유동성조절 수단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의 활용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참고 II-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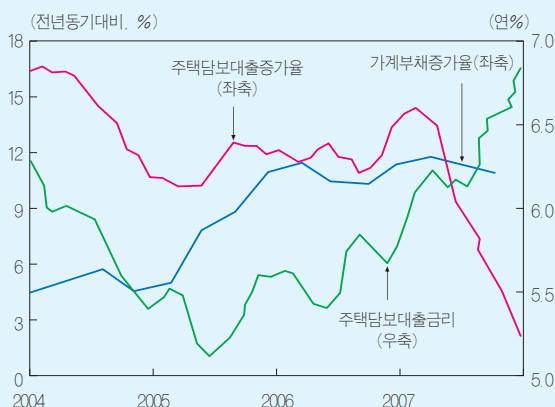
정책금리 인상의 효과 점검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의 개선추세에 상응하여 금융완화의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정책기조 하에서 2005년 10월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를 1.75% 포인트 인상하였다. 기간별로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다섯 차례의 콜금리 목표 인상 시에는 장기간의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그리고 2007년 7월과 8월에는 시중 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중장기 물가안정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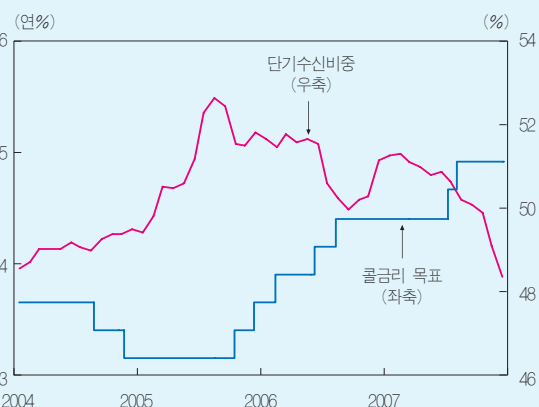
이러한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에서는 CD(91일)와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이 2005.9¹⁾~2007.9월중 각각 1.84% 포인트 및 1.30% 포인트 올랐다. 아울러 은행 수신 및 여신 금리도 각각 1.80% 포인트 및 1.21%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콜금리 목표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금리의 상승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함께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택가격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금리상승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2006년말 11.6%에서 2007년말에는 3.1%로 낮아졌다. 부동산가격의 상승폭 제한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2005~2006년중의 연평균 23.7조원에서 2007년중에는 4.6조원으로 크게 축소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정책금리 인상 이후 금융기관 수신금리 및 장기시장금리 상승으로 장기저축유인이 증대함에 따라 금융기관 수신 구조의 단기화 현상이 개선되었다.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²⁾은 2005년말 51.8%에서 2007년말에는 48.3%로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부채 증가율



콜금리 목표와 금융기관 단기수신 비중



1) 시장금리는 2005년 10월의 정책금리 인상을 선반영하여 9월부터 상승하였다.
 2)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및 은행신탁 총수신(평잔기준)에서 차지하는 만기 6개월 미만 수신의 비중으로 구해진다.

이 밖에도 시장금리 상승은 순금융자산 보유주체인 가계의 이자소득 증가를 가져와 가계와 기업 간 소득불균형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계 · 기업¹⁾의 이자수지²⁾

	(조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가 계	28.7	29.2	21.1	19.1	18.3	14.2	13.5	19.3
기 업	-31.9	-25.8	-17.0	-14.7	-14.3	-12.1	-13.5	-14.6
가계GNI / 기업GNI(배) ³⁾	5.0	4.9	4.5	4.2	3.6	3.7	4.0	4.0

주 : 1)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상의 개인(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금융법인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상의 [이자(원천)-이자(사용)]
 3) 가계GNI(명목): 피용자보수, 이자, 배당금 등
 기업GNI(명목): 영업잉여, 이자, 배당금 등

한편 정책금리 인상의 유동성 수축 효과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2007년 7월과 8월의 콜금리 목표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확대 노력과 외국인의 채권투자 증가 등으로 4/4분기중 M2 및 Lf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1% 내외를 보이는 등 유동성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통화증가율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2008	
			I	II	III	IV	1월	
M2	6.9	8.3	11.5	11.0	11.1	11.2	12.5	
Lf	7.0	7.9	10.0	10.2	10.2	10.5	11.4	

2. 餘他 通貨信用政策

(通貨政策 運營體系 改編)

한국은행은 지난해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간 조화를 도모하고 금리중심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에서 RP매매 등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필요지준 규모가 사전에 확정되도록 지준제도를 개선하고 공개시장조작 시기를 정례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기성 여수신 성격의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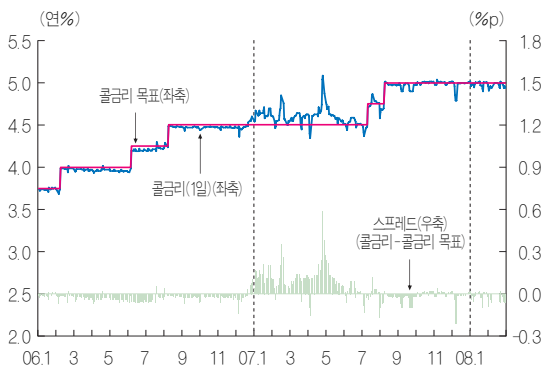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개편으로 주요 통화정책수단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콜금리의 시장성 회복과 함께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조정대출제도의 도입은 금융불안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總額貸出限度 調整)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총액대출한도를 지난해 1/4분기(1.6조원 감축)에 이어 3/4분기부터는 추가로 1.5조원 감축하여 총 6.5조원으로 운용하였다. 내역별로는 금융기관별 한도를 3.0조원에서 1.5조원으로 축소하였으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지역본부별 한도)는 종전과 같이 4.9조원으로 유지하였다.

〈그림 II - 6〉

콜금리 및 콜금리의 목표대비 스프레드



〈표 II - 6〉

총액대출한도 조정 내용

구 분	(조원)		
	2006.Ⅳ이전	2007.Ⅰ~Ⅱ	2007.Ⅲ 이후
금융기관별한도	5.0	3.0	1.5
지역본부별한도	4.4	4.9	4.9
유 보 한 도	0.2	0.1	0.1
합 계	9.6	8.0	6.5

재해발생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자금을 편성·지원하였다. 지난해 9월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100억원 지원하였다. 12월에는 충남 서해안의 원유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대출 한도를 400억원 추가 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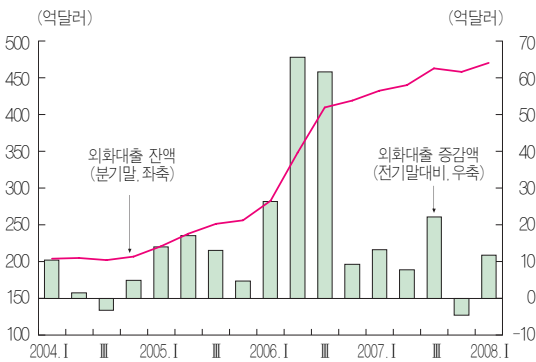
(通貨政策手段 改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시장조작 등 통화정책 운용수단을 개선하였다.

먼저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를 종전 「총통화(舊 M2)의 50%이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중유동성 사정 등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금년 1/4분기부터 실시하였다. 아울러 금년 3월부터 금융시장 안정 또는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이외의 금융기관과도 상대매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에서의 유동성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총 4.2조원의 국고채를 단순매입(outright purchase)하여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을 확충하였다.

<그림 II - 7>

외화대출 현황¹⁾



주 : 1) 2008년 1/4분기는 1~2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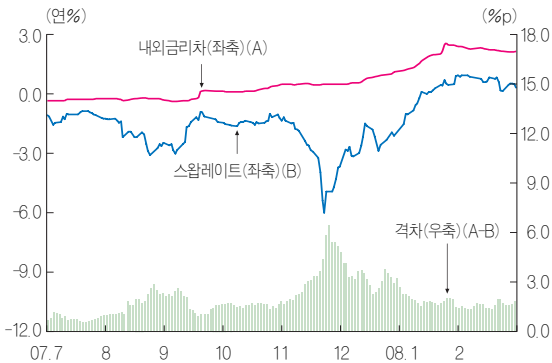
(外貨貸出 用途制限 實施)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10일부터 외화대출의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시설자금으로 제한하였다. 외화대출의 용도 제한으로 인해 2006년부터 큰 폭 증가를 보였던 외화대출 증가세는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한편 금년 1월 28일부터는 국내시설자금의 범위에 비제조업을 포함하였다.

〈그림 II - 8〉

내외금리차¹⁾ 및 스왑레이트²⁾간 격차



주 : 1) CD - Libor (3개월물 기준)
 2) (선물환율/현물환율-1)×100(연%), 선물환율은 3개월 NDF환율 기준

(스왑市場 參與)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스왑시장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스왑시장에 직접 참여한 것은 조선·중공업체 및 해외증권 투자자의 선물환 매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확산되면서 스왑레이트가 급락하는 등 스왑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스왑시장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¹⁾를 중단하였으며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거래도 금년부터 중단하였다.

(通貨信用政策에 대한 理解 및 信賴 提高)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표 II - 7〉

2007년 경제교육 실적

		(회, 명)		
		횟 수	인 원	
일 반 인 교 육 (A)	일 반 인 교 육 (A)	726	73,070	
	강 좌	대 학 (원) 생	227	15,989
		공 무 원	56	4,810
		교 직 원	63	3,301
		기 타 ¹⁾	380	48,970
청 소 년 교 육 (B)	청 소 년 교 육 (B)	1,739	216,536	
	강 좌	초 등 학 생	917	79,739
		중 학 생	446	77,941
		고 등 학 생	286	55,285
		기 타 ²⁾	59	2,392
소 계	1,708	215,357		
심 화 교 육	경 제 캠프	23	860	
	교 사 연 수	7	292	
	기 타 ³⁾	1	27	
소 계	31	1,179		
합 계 (A + B)		2,465	289,606	

주 : 1) 공공기관 직원, 회사원, 군인, 경찰 및 일반인 혼합 참가 등, 「금융강좌」 포함
 2) 초·중·고생 혼합 참가(예 : YMCA 개최 경제교육 등)
 3) 방문전학, 집중강좌 등

매월 금융기관 대표들과의 「금융협의회」, 연구기관·학계 인사와의 「경제동향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통화정책의 피드백 채널로 활용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민경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2007년중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각종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총 29만명에 대해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콘텐츠 개발, 「교과서 도우미」

1) 동 제도는 기업투자 촉진 및 통화관리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5년 7월 도입되었다.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에 원화자금 수취를 대가로 외화자금을 지급하고 외국환은행은 이를 자본채수입자금 및 해외영업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한 후 만기에 환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공을 통한 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등 「경제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의 활성화에도 노력하는 한편 화폐금융박물관을 화폐 및 경제교육의 場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참고 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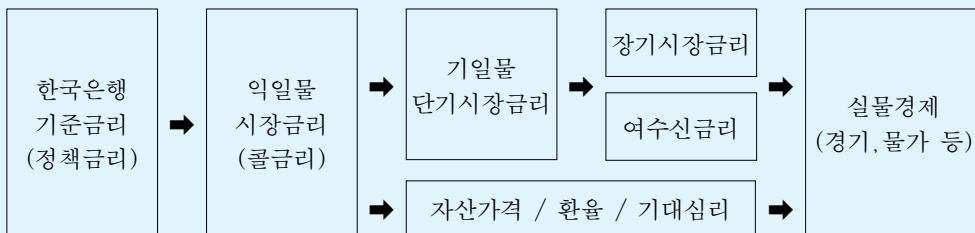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하면서 통화정책 운영을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으로 변경하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일 콜금리(무담보 익일물기준)의 목표수준을 설정해 왔다. 콜금리목표제는 그동안 통화량과 실물경제와의 관계가 크게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통화량목표제에 비해 유동성의 신축적 조절이 용이하여 대우사태, 카드사태 등과 같은 금융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콜금리목표제로 인해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 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는 한편 단기자금거래의 콜시장 집중으로 RP 등 여타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콜금리 목표 조정으로부터 단·장기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금리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이 제약되었다. 콜금리 목표와 정책수단과의 유기적 관계에 있어서는 지준제도 및 대출제도가 통화량목표제에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목표제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금리중심 통화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준제도 등 정책수단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파급경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일 결정하는 정책금리는 현행 「콜금리 목표」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RP매매 등)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약칭 ‘기준금리’)」로 변경되었다. 다음으로 지급준비제도에 있어서는 현행 「반월계산 7일 이연 적립방식」을 「반월계산 1개월 이상 이연 적립방식」으로 변경하여 필요지준 적립규모가 지준적립기간 개시 이전에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준적립기간을 현행 ‘일자’ 기준에서 ‘요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준적립일과 정책금리 결정일(통상 둘째 주 목요일)의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공개시장조작과 관련하여서는 매주 목요일 7일물 RP매매를 통해 단기유동성을 조절하도록 하고 매각시에는 기준금리에 의한 고정입찰방식을, 매입시에는 기준금리를 최저금리로 하는 입찰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콜금리가 일정 범위 이내에서 변동되도록 금융기관이 금액, 횟수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을 도입하고 이들 금리는 기준금리에 100bp(지준마감일 50bp)를 가감하여 결정되도록 하였다. 자금조정대출 도입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일시부족자금대출 및 유동성조절대출 제도는 폐지하였다.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도입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시장조작의 정례화, 자금조정 대출·예금의 도입, 필요지준 규모의 사전 확정 등으로 정책수단이 단순·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신뢰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콜금리의 시장성 회복은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자금운용기법의 고도화를 촉진할 것이다. 콜금리의 변동성 확대로 금리변동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일물 거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자금조정 대출·예금은 콜금리의 급변동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토록 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내용

	주요 내용
1. 정책금리 - 정책금리 변경	· 익일물 콜금리 목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콜금리와 기준금리의 관계	· 콜금리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는 시장금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
2. 지준제도 - 지준적립기간의 완전이연	· 반월계산 7일 이연 적립방식 → 반월계산 1개월 이상 이연 적립방식
- 지준금 인정 대상 시재금 보유시기 변경	· 지준적립기간중 보유현금 → 지준계산기간중 보유현금
- 지준적립기간 변경	· 일자기준 → 요일기준
3. 공개시장조작 - 공개시장조작 시기 정례화	· 매주 목요일 1회 실시, 단 정책금리 결정일이 목요일이 아니거나 휴일인 경우에는 시행시기를 조절하고 RP 만기도 조정
	· 7일물 RP매매를 주된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사용하되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1일물 등 단기 RP매매를 실시
- RP매매 방식 변경	·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시에는 고정금리로, 매입시에는 최저입찰금리로 활용 · 단기RP매매시에는 매각·매입시 모두 정책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금리 입찰 실시
4. 여수신제도 -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 금융기관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을 도입 · 금리는 기준금리±100bp로 설정, 단 콜금리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준마감일에는 가산금리를 ±50bp로 축소 운용 · 전산장애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시에는 금리, 만기, 담보 등을 조정
- 기존 여신제도 정비	· 일시부족자금대출 및 유동성조절대출은 폐지

3. 金融市場 安定

(金融市場 狀況 點檢 및 對應)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였다.

2007년 8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응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금융상황점검 Task Force」를 설치하여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파급영향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임을 공표하였다.

(共同檢査 實施)

〈표 II - 8〉

공동검사 실시 상황¹⁾

2000	국내은행	한빛, 외환, 대구(3개)
2001	국내은행	한빛, 조흥, 서울, 외환, 평화,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10개)
	외은지점	씨티, 도이치, HSBC(3개)
2002	국내은행	제일, 한미, 신한, 조흥, 국민, 우리, 대구, 기업, 수협, 농협(10개)
	외은지점	도쿄 미쓰비시, BOA, 스탠다드차타드(3개)
2003	국내은행	부산, 외환, 제일, 신한, 하나, 광주, 경남, 산업(8개)
	외은지점	씨티, BNP파리바, JP모건체이스(3개)
2004	국내은행	조흥, 외환, 국민, 한미, 대구, 농협, 수협, 기업, 우리(9개)
	외은지점	HSBC, 도이치, UBS(3개)
2005	국내은행	하나, 부산, 전북, 조흥, 국민, 한국씨티(6개)
	외은지점	칼리온, ABN암로(2개)
2006	국내은행	SC제일, 대구, 산업, 농협, 기업, 신한(6개)
	외은지점	BNP파리바, JP모건체이스(2개)
2007	국내은행	외환, 경남, 우리, 한국씨티, 국민(5개)
	외은지점	HSBC(1개)
2008. 1~2월	국내은행	부산(1개)

주 : 1) 특정 주제에 대해 다수의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문검사의 제외

한국은행은 2007년 하반기와 금년 1~2월중 한국씨티, 국민, 부산 등 3개 국내은행과 HSBC 등 외은지점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점검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총액한도대출, 예금지급준비, 지급결제 등 통화신용정책관련 규정 및 조치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외채 증가, 스왑시장 왜곡 등에 대응하여 11~12월중 산업, 신한, 한국씨티, SC제일, 칼리온, 도이치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선물환 수급불균형에 대한 공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물환 초과공급의 원인·구조·파급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支給決済制度의 安全性 및 效率性 提高)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표 II - 9〉

한은금융망 자금결제 동향¹⁾

(단, 조원, %)

		2006. 하반기 (A)	2007. 하반기 (B)	증감 (B-A)	
건 수	원 화 자 금 이 체	7,500(88.9)	8,493(90.4)	993	
	(총액결제)	7,026(83.3)	8,067(85.9)	1,041	
	(차액결제)	474(5.6)	426(4.5)	-48	
	국 고 금 수 급	886(10.5)	853(9.1)	-33	
	한국은행대출	28(0.3)	23(0.2)	-5	
	국 공 채 결 제	24(0.3)	27(0.3)	3	
	합 계	8,438(100)	9,396(100)	958	
	외 화 자 금 이 체	9(-)	10(-)	1	
	기 액	원 화 자 금 이 체	119.6(94.0)	152.5(94.7)	32.9
		(총액결제)	109.4(86.0)	138.6(86.0)	29.2
(차액결제)		10.2(8.0)	13.9(8.7)	3.7	
국 고 금 수 급		2.9(2.3)	3.0(1.9)	0.1	
한국은행대출		0.9(0.7)	0.7(0.4)	-0.2	
국 공 채 결 제		3.8(3.0)	4.9(3.0)	1.1	
합 계		127.2(100)	161.1(100)	33.9	
외 화 자 금 이 체 (백만 달러)		162.1(-)	264.0(-)	101.9	

주 : 1) 일평균 기준, ()내는 구성비

지난해 12월 한은금융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마감시각 연장사유를 구체화하고 마감시각 이후 수수료체계를 정비하였다. 금년 1월에는 한은금융망 결제가 오후시간대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어음교환차액결제와 콜자금 상환시점을 오후(14:30)에서 오전(11:30)으로 앞당기고 대기시간 제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참가기관의 결제자금 부담 경감과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新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2009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금년 3월경부터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내년 2월부터는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취급 확대가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여건 조성 및 제도 보완 등에 노력하였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금융IC카드 보안토큰(공인인증서기반 거래용) 규격」을 제정하고 「금융IC카드 금융공동망(현금카드)표준」을 개정하여 금융IC카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Ⅲ. 通貨信用政策 運營與件 및 方向

1. 世界經濟

가. 經濟成長

2008년중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의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의 주택경기 부진,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설비투자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주택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개인소비도 마이너스 부의 효과, 고유가 등으로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달러화 약세, 신흥시장국의 견실한 성장 등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면 경기침체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경제는 고성장 기조를 이어가겠으나 성장률 수준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고용 확대, 소득 증가 및 올림픽 특수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고정투자는 내륙개발 수요, 기업의 투자여력 등에 비추어 계속 활기를 보이겠으나 정부의 과열억제 조치로 급증세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위안화 절상, 미국의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신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Ⅲ- 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2007 ¹⁾	2008 ²⁾		2009 ²⁾
		IMF	OECD	OECD
전 세계	4.9	4.1	2.3 ²⁾	2.4 ²⁾
(미 국)	2.2	1.5	2.0	2.2
(중 국)	11.4	10.0	10.7	10.1
(일 본)	2.1	1.5	1.6	1.8
(유로지역)	2.7	1.6	1.9	2.0

주 : 1) IMF 기준, 단 개별국가 및 유로지역은 각국 발표치

2) OECD 회원국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8.1)

OECD, OECD Economic Outlook(2007.12)

일본경제는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저조한 가운데 설비투자도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주택투자는 건축규제 강화의 영향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대미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유로지역의 성장률도 전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민간소비가 고용사정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유지하겠으나 설비투자는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강화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신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신흥시장국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둔화, 유로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환율 및 國際原資材價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엔화 및 유로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당분간 약세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경제가 연준 및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미 달러화의 강세 전환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위안화의 경우에는 중국정부의 점진적 절상 원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수입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등을 감안할 때 절상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국제유가는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수요 증가, 산유국의 증산여력 제약, OPEC의 고유가 유지 정책,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을

〈표 III - 2〉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Brent油) 전망¹⁾
(기간중 평균)

	2007	2008 ^o				2009 ^o	
		연간	I	II	III		IV
실 적 치	72.8						
CERA (2.27)		92.8	94.6	96.5	91.5	88.5	81.5
CGES (2.25)		84.5	94.0	93.8	80.2	70.0	-
OEF (2.25)		86.8	91.7	88.9	85.1	81.4	76.5
Barclays(2.27) Capital		96.4	95.0	92.0	96.1	102.4	88.3

주 : 1) () 내는 전망 일자

자료 :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 세계에너지연구소(CGES), 옥스퍼드경제연구소(OEF) 등

〈표 Ⅲ- 3〉

기타원자재가격 전망¹⁾

	2006	2007	2008 ²⁾	2009 ³⁾
IMF	28.4	12.2	-6.7	-
OEF	23.2	14.0	18.1	-4.4
EU집행위	28.2	17.3	4.3	-2.1

주 : 1) 기간 평균, 전년대비 상승률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7.10)

OEF, Commodity Price Monitor(2008.2)

EU, Economic Forecast(2007.10)

지속할 전망이다. 기타 국제원자재가격은 곡물 가격이 낮은 재고 수준, 고유가에 따른 대체연료 수요확대 등으로 계속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며 비철금속가격도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공급차질 우려 등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2. 國內經濟

〈표 III- 4〉

경제성장률 전망¹⁾
(전기대비)

	2006	2007				2008 ²⁾		
		연간	Ⅲ	Ⅳ	연간	상반	하반	
								(%)
G D P	5.1	5.0	1.5	1.6	4.7	1.1	1.0	
			(5.1)	(5.7)		(4.9)	(4.4)	
(민간소비)	4.5	4.5	1.3	0.8	4.3	1.0	1.0	
			(4.8)	(4.6)		(4.5)	(4.0)	
(설비투자)	7.8	7.6	-1.8	2.1	6.4	2.5	0.9	
			(2.3)	(6.5)		(4.5)	(8.3)	
(건설투자)	-0.1	1.2	0.2	1.2	2.8	1.0	1.0	
			(-0.1)	(0.4)		(1.6)	(3.9)	
(상품수출)	12.4	12.0	1.8	7.4	10.3	1.7	3.2	
			(9.0)	(17.7)		(9.4)	(11.1)	
(상품수입)	11.2	10.9	-2.4	9.9	10.2	3.4	1.7	
			(5.1)	(17.6)		(8.6)	(11.7)	

주 : 1) ()내는 원계열의 전년동기대비, 상·하반 전기대비는 각 분기 성장률의 평균
2) 2007년 12월 전망치

2008년중 우리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내수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경기 부진,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간소비는 고용사정 개선, 조세성지출 부담 완화 등에 힘입어 완만하나 개선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역조건 악화, 증시 불안 등에 따른 부의 효과 축소, 가계채무부담 지속 등이 소비 확대의 제약요인이 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선행지표 개선, IT경기 회복 전망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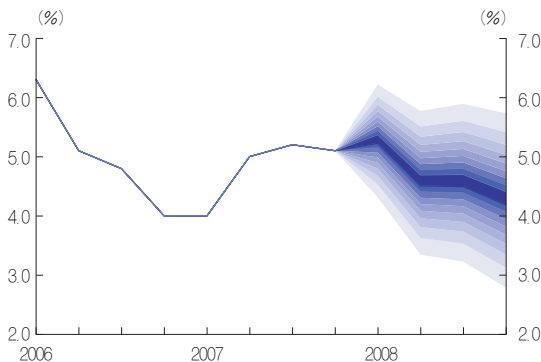
건설투자는 그간의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해 민간 주택건설이 계속 부진하겠으나 국토균형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비주거용 건설투자가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수출(상품물량 기준)은 신흥시장국의 고성장 지속 및 주력 수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 등에 힘입어 활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상품물량 기준)은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전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2008년중 GDP 성장률 경로를 Fan Chart를 통해 분석해 보면 2008년 2월 현재 금년중 경제성장률이 4.0% 이상 5.0% 미만일 확률은 48%, 5.0% 이상일 확률은 34%, 4.0% 미만일 확률은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 1〉

경제성장률 Fan Chart
(전년동기대비)



경상수지는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지속 등으로 상품수지의 흑자가 축소되고 서비스·소득수지는 해외여행지급 증가 등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사정은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성장의 고용창출력 저하, 고유가 및 미국경기 부진 등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감안할 때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의 금리 민감도 상승, 내외금융 통합 등으로 시중자금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가 확대될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증대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3. 物價

〈표 III-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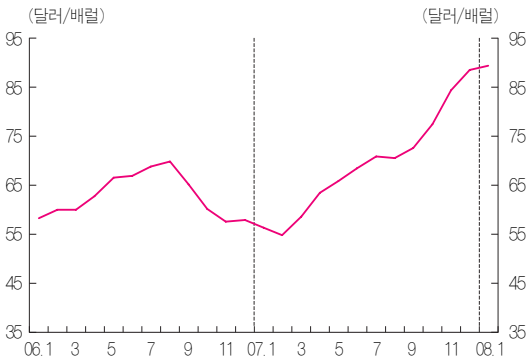
물가상승률 전망
(전년동기대비)

	2006	2007			2008 ¹⁾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소비자물가	2.2	2.5	2.2	2.9	3.3	3.5	3.1
근원인플레이션	1.8	2.4	2.3	2.3	2.9	2.8	3.0

주 : 1) 2007년 12월 전망치

〈그림 III-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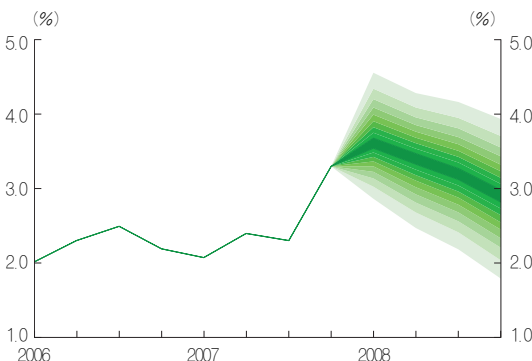
원유도입단가¹⁾



주 : 1) CIF 기준
자료 : 한국석유공사

〈그림 III- 3〉

소비자물가 상승률 Fan Chart
(전년동기대비)



2008년중 물가는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목표범위의 중심선을 웃도는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그간의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이 현재화될 것으로 보인다. GDP갭률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금년중에도 플러스를 보일 전망이다. 비용측면에서는 유가 및 곡물가격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비용측면의 물가상승요인을 고려할 때 2008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으로 물가오름세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개인서비스요금 및 기타공급제품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택가격은 규제완화 기대심리 등 불안요인이 없지 않으나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수요 등을 배경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를 Fan Chart를 통해 분석해 보면 2008년 2월 현재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물가안정목표범위(3.0±0.5%)에 머무를 확률은 58%이며 동 범위의 상한(3.5%)을 웃돌 확률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4. 向後 通貨信用政策 運營方向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금융시장, 미국경기, 국제유가 등 해외요인의 움직임을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할 것이다. 새 운영체계 시행 이후의 금융시장 상황과 금융기관 적응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시장조작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은 물론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할 것이다.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효과적인 통화안정증권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발행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新BIS협약 적용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총액 한도대출 등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도 높여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자금흐름 급변동 및 국제금융시장 동요 가능성 등 잠재적 시장불안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히 대처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 도입된 자금조정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新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확대 등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유의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附 錄

1. 金融通貨委員會의 主要 議決事項
2. 主要 經濟指標

1. 金融通貨委員會의 主要 議決事項

2007年

제15차 (2007. 7. 12)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 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재의 4.50%에서 4.75%로 상향조정하여 운용하기로 하였음
-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의 오름세도 뚜렷이 둔화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금융기관 여신이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 인상조정된 콜금리 목표는 여전히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개정

현		개	
행		정	
I. 여신업무이율		I. 여신업무이율	
구	분	구	분
이	율	이	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에 의한 대출중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에 의한 대출중	
1. 제1호에 의한 유동성조절대출	연 4.25%. 다만, 대출월 직전 2개월간 연속하여 유동성조절대출을 차입한 실적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위 이율에 1% 포인트를 더한 이율	1. 제1호에 의한 유동성조절대출	연 4.50%. 다만, 대출월 직전 2개월간 연속하여 유동성조절대출을 차입한 실적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위 이율에 1% 포인트를 더한 이율
2. 제2호에 의한 총액한도대출	연 2.75%	2. 제2호에 의한 총액한도대출	연 3.00%
3. 제3호에 의한 일시부족자금대출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한 콜금리 목표에 2% 포인트를 더한 이율	3. 제3호에 의한 일시부족자금대출	(현행과 같음)
4. 제4호에 의한 일중당좌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중당좌대출에 한함)	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를 차감한 율로 하되,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증권업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 분기 말월 중 평균금리로 함	4. 제4호에 의한 일중당좌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중당좌대출에 한함)	(현행과 같음)
II. 기 타		II. 기 타	
시행일자 : 2006년 8월 10일(다만, 4. 제4호에 의한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이율은 2006년 9월 1일)		시행일자 : 2007년 7월 12일	

제16차 (2007. 7. 26)

◇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

1. 대상기관

구분	환매조건부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및 증권단순매매	
	기관수	기관명	기관수	기관명
은행	18	우리, SC제일, 신한, 한국씨티, 외환, 하나, 국민, 산업, 기업,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경남, HSBC, UBS, 도이치, JP모건체이스	11	우리, SC제일, 신한, 한국씨티, 국민, 기업, 농협, 외환, HSBC, 도이치, JP모건체이스
증권회사 등	2	대신, 한국증권금융	12	굿모닝신한, 대우, 동양증권, 부국, 삼성, 신영, 신흥, 우리투자, 한국투자, 한화, 현대, SK
합계		20		23

2. 유효기간 : 2007. 8. 1 ~ 2008. 7. 31

제17차 (2007. 8. 9)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 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재의 4.75%에서 5.00%로 상향조정하여 운용하기로 하였음
-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의 오름세도 제한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가운데 금융기관 여신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이번 콜금리 목표 인상으로 금융완화의 정도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개정

현 행		개 정	
I. 여신업무이율		I. 여신업무이율	
구 분	이 율	구 분	이 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에 의한 대출중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에 의한 대출중	
1. 제1호에 의한 유동성조절대출	연 4.50%. 다만, 대출일 직전 2개월간 연속하여 유동성조절대출을 차입한 실적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위 이율에 1% 포인트를 더한 이율	1. 제1호에 의한 유동성조절대출	연 4.75%. 다만, 대출일 직전 2개월간 연속하여 유동성조절대출을 차입한 실적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위 이율에 1% 포인트를 더한 이율
2. 제2호에 의한 총액한도대출	연 3.00%	2. 제2호에 의한 총액한도대출	연 3.25%
3. 제3호에 의한 일시부족자금대출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한 콜금리 목표에 2% 포인트를 더한 이율	3. 제3호에 의한 일시부족자금대출	(현행과 같음)
4. 제4호에 의한 일증당좌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증당좌대출에 한함)	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를 차감한 율로 하되,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증권업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 중 평균금리로 함	4. 제4호에 의한 일증당좌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증당좌대출에 한함)	(현행과 같음)
II. 기 타		II. 기 타	
시행일자 : 2007년 7월 12일		시행일자 : 2007년 8월 9일	

제19차 (2007. 9. 7)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5.00%)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의 오름세도 제한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금융기관 여신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음
-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은 새로 발표되는 물가, 경기 및 금융지표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임

제20차 (2007. 9. 20)

- ◇ 2007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 2007년 4/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6.5조원으로 정한다.
- ◇ 2007년 4/4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 결정
 - 2007년 4/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조절대출 한도를 5조원으로 정한다.

제21차 (2007. 10. 11)

-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5.00%)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최근 국내 경기는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의 오름세도 제한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시장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금융기관 여신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축소되었음

제23차 (2007. 11. 8)

-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5.00%)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최근 국내 경기는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제유가 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등으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소비자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은 오름세가 제한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금융기관 여신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제24차 (2007. 11. 22)

◇ 「공개시장조작규정」 개정

현행	개정
제1조 ~ 제11조 (생략)	제1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발행한도) <u>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는 총통화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u>	제12조(발행한도) <u>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여건과 시중 유동성사정 등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를 정한다. 다만, 금융경제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u>
제13조 ~ 제43조 (생략) (신설)	제13조 ~ 제43조 (현행과 같음) 부칙 <2007. 11. 22> <u>이 규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를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u>

제25차 (2007. 12. 7)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수준(5.00%)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최근 국내 경기는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제유가 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등으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 소비자물가는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은 오름세가 제한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금융기관 여신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음

제26차 (2007. 12. 20)

◇ 2008년 1/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 2008년 1/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6.5조원으로 정한다.

◇ 2008년 1/4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 결정

- 2008년 1/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조절대출 한도를 5조원으로 정한다.

2008年

제1차 (2008. 1. 4)

◇ 200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I.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물가안정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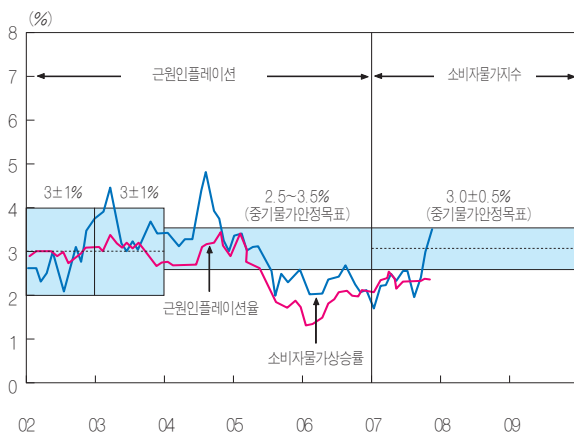
- 물가안정목표는 2007~2009년중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3.0 \pm 0.5\%$
 - 물가가 목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예상 이탈 기간, 정책과급시차, 금융·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방향 결정
 - 정책 대응시에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목표에 수렴되도록 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2. 실물경제

◆ 2008년중 국내경제는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되겠으나 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경상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실물경제는 수출의 건실한 증가와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회복으로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경상수지는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해외여행 지출 증가 등으로 서비스·소득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소폭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물가는 고유가 등 공급측 요인과 함께 그간의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률이 목표범위의 중심선을 웃돌 전망

물가안정목표



경제 전망

	2006	2007 ^{a)}	2008 ^{b)} (전년동기대비, %)		
			상반	하반	연간
GDP 성장률 ¹⁾	5.0	4.8	4.9 (1.1)	4.4 (1.0)	4.7
경상수지(억달러)	61	65	-85	55	-30
소비자물가	2.2	2.5	3.5	3.1	3.3

주 : 1) ()내는 분기별 전기대비 증가율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2008년 경제전망(07.12.5일 발표)

3. 금융·외환시장

◆ 시중유동성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원활하겠으나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일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여건이 악화될 가능성

- 은행 대출의 신장세는 전년보다 둔화될 전망
 - 대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
- 채권 발행규모는 국고채 발행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는 반면 채권매입 수요는 국민연금 및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둔화될 전망
- 외환시장에서는 외자의 순유출규모가 전년에 비해 확대될 전망
 -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등으로 자본거래가 계속 순유출을 보이는 가운데 경상거래를 통한 순유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

4. 재 정

- 정부 총예산(총지출 기준, 기금 포함)은 지난해 대비 7.9% 확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의 적자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GDP 대비 1.1% 수준

Ⅱ.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기하면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
- ◆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1. 금리정책방향

- 정책금리는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영
 - 물가는 고유가의 영향, 그간의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 등으로 목표범위의 중심선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전망
 - 국내 경기는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유가상승세 지속 및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반영하는 정보변수로서 유동성지표의 움직임도 고려

2.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 콜금리의 시장성을 제고하고 금리중심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시행
 - 정책금리를 콜금리목표에서 당행의 RP매매 등 對금융기관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
 - 지준제도 및 공개시장조작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대기성 여수신제도(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를 도입
 - 일시부족자금대출 및 유동성조절대출제도는 폐지
-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 시행에 앞서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 제반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 시행 초기에는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익일물 RP 등 보완적 공개시장조작을 적극 실시

- 유동성 조절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RP매각 대상채권 매입을 지속
- 3. 정책의 효율성 제고
 - 통안증권 발행규모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발행한도를 설정
 - 통안증권의 수요기반 확대방안도 검토
 -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지역본부별 한도 위주로 운영
 -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
 - 국내외 금융시장 통합,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등에 대응하여 시장상황을 신속하게 파악·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
 - 특히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의 시그널링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장참가자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 피드백 채널의 확충 노력 지속
 - 재정·외환·금융감독정책과의 조화적 운영도모

4. 금융안정 노력 강화

- 시중자금의 쏠림현상,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취약해진 데 대응하여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불안 징후 감지시 신속히 대응

- 새로이 도입되는 대기성 여신제도를 위기대응수단으로 적절히 활용

- 신BIS협약 적용(2008년)으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에 유의
 -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년)이 금융기관간 자금조달·운용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간 자금흐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
-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확대 등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유의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
 - 또한 어음교환 차액결제의 조기화 등으로 한은금융망 업무마감시간대의 결제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2009년 상반기에 가동 예정인 신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제2차 (2008. 1. 10)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수준(5.00%)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최근 국내 경기는 투자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제유가 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으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소비자물가는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은 오름세가 제한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서도 자금흐름의 변화 등으로 장단기 시장금리는 오름세를 나타내었음

나.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중 91일 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율로 한다.

◇ 「2008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 ‘한국증권업협회’ 고시 통화안정증권(91일물) 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대출금 한도, 상환기한 및 이율 등은 다음과 같다.

2. 부대조건

가. 대출금 한도 및 상환기한

가.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재정증권의 시장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함으로써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억제하여야 한다.

대출구분	회 계 별	대출금 한도 (억원)	상환기한	기 타
일시대출금	통합계정	130,000	2008.12.31.	
	우편사업특별회계	1,000		
	조달특별회계	2,000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0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단, 2008.9.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합 계		203,000		

나.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위임사항 : 건별 대출의 실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한다.

제3차 (2008. 1. 24)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 및 제64조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차입 금융기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한 대출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의2 (현행과 같음)	
1.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제 규정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세칙 또는 지시의 준수		1. (현행과 같음)	
2. 한국은행이 대출결정을 위하여 차입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유동성사정, 여수신 등 자금조달·운용상황, 경영건전성 등 경영상황과 기타 대출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한국은행이 대출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유동성사정, 여수신 등 자금조달·운용상황, 경영건전성 등 경영상황과 기타 대출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3.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차입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의 수검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p>제2조(대출구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용한다.</p> <p>1. <u>통화 및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기관의 유동성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대출(이하 “유동성조절대출”이라 한다)</u> (신설)</p> <p>2.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대출(이하 “총액한도대출”이라 한다)</p> <p>3.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하 “일시부족자금대출”이라 한다)</p> <p>4.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결제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일중당좌대출”이라 한다)</p> <p>제3조(대출형식) <u>유동성조절대출, 총액한도대출 및 일시부족자금대출의 형식은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어음채할인 또는 증권담보대출로 하며, 일중당좌대출의 형식은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증권담보대출로 한다.</u></p> <p>제4조(재할인 및 담보대출대상 증권) ② <u>일중당좌대출의 담보로 취득하는 증권은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으로 한다.</u></p> <p>① <u>유동성조절대출, 총액한도대출 및 일시 부족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한 재할인의 결과로 취득하는 증권과 증권담보대출의 담보로 취득하는 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증권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신용증권은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대출로 취득한 어음 등 신용증권. 다만,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어음 등 신용증권은 제외 2. 금융기관이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가공에 관한 대출로 취득한 어음 등 신용증권 3. 금융기관이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신용증권. 다만, 정부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경우에 한함 4.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5.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유동성조절대출</p>	<p>제2조 (현행과 같음)</p> <p>1. (삭제)</p> <p>1. <u>금융기관이 자금수급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자금조정대출”이라 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대출형식) <u>자금조정대출 및 일중당좌대출의 형식은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권담보대출로 하며, 총액한도대출의 형식은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음채할인 또는 증권담보대출로 한다.</u></p> <p>제4조(재할인 및 담보대출대상 증권) ① <u>자금조정대출 또는 일중당좌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로 취득하는 증권은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으로 한다.</u></p> <p>② <u>총액한도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재할인 또는 담보로 취득하는 증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용증권은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어야 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현행	개정
<p><u>제5조(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설정 및 운용)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 및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기관의 유동성사정 등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이하 “유동성대출 한도”라 한다)를 정한다. 다만, 금융경제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유동성대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u></p> <p><u>② 한국은행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유동성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매월 지위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각 금융기관별로 한도(이하 “월중 유동성대출한도”라 한다)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달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월중 유동성대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u></p> <p><u>제6조(월중 유동성대출한도) 월중 유동성대출한도는 대출신청 금융기관의 유동성사정 및 개선노력, 자금조달·운용상황, 경영 건전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정한다.</u></p> <p><u>제7조(유동성조절대출의 대출기간) 유동성조절대출의 대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u></p> <p><u>제8조(유동성조절대출의 용도제한) 금융기관은 여신·투자 확대 등의 목적으로 유동성조절대출을 차입할 수 없다.</u></p> <p><u>제9조(유동성조절대출 차입 금융기관에 대한 점검) 총재는 유동성조절대출을 차입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상황, 유동성 개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자금조정대출</u></p> <p><u>제5조(자금조정대출의 대상금융기관) 자금조정대출의 대상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u></p> <p><u>제6조(자금조정대출의 제한)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요구 또는 명령에 한한다) 또는 「은행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를 받거나 그러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조정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u></p> <p><u>② 한국은행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자금조정대출이 제한되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사정 등의 개선상황을 점검한다.</u></p> <p><u>제7조(자금조정대출의 대출기간) 자금조정대출의 대출기간은 1영업일로 한다.</u></p>
<p>(신 설)</p>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총액한도대출</p> <p>제10조(총액한도대출의 한도설정 및 운용)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이하 “총액한도”라 한다)를 정한다. 다만, 금융경제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총액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총채는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매월 각 금융기관별로 한도(이하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라 한다)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총채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액한도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매월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한도(이하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라 한다)를 배정·운용할 수 있다.</p> <p>③ 총채는 총액한도의 10% 범위내에서 한도배정을 유보하여 필요시 운용할 수 있다</p> <p>제11조(금융기관별 총액한도)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는 각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무역금융의 취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p> <p>제12조(지역본부별 총액한도)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는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의 담당지역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지역별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p> <p>제13조(총액한도대출의 대출기간) 총액한도대출의 대출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일시부족자금대출</p> <p>제14조(일시부족자금대출의 한도) ①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 규정」에서 정하는 예금지급준비금의 부족으로 일시부족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한도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한다.</p> <p>1. 일별한도: 대출신청 금융기관의 필요지급준비금 평잔의 50% 해당금액(1억원미만 금액은 떼어버림)</p>	<p>제8조(자금조정대출의 대출조건 완화) 금융통화위원회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장애, 자연재해 등으로 금융시장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으로서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을 자금조정대출의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증권으로 인정</p> <p>2. 1개월의 범위내에서 자금조정대출의 대출기간을 연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총액한도대출</p> <p>제9조(총액한도대출의 한도설정)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이하 “총액한도”라 한다)를 정한다. 다만, 금융경제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총액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p> <p>제10조(총액한도대출의 운용) ① 총채는 제9조에 따른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매월 각 금융기관별로 한도(이하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라 한다)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총채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액한도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매월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한도(이하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라 한다)를 배정·운용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현행	개정
<p>2. <u>반월한도(적수기준): 대출신청 금융기관의 필요지급준비금 평잔의 100% 해당금액(1억위미만 금액은 떼어버림)</u></p> <p>② <u>총재는 지급결제자금이 부족하게 된 금융기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예금지급준비금이 부족하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동 부족자금 범위내에서 일시부족자금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의 필요지급준비금 평잔의 산정기준은 총재가 정한다.</u></p> <p>제15조(일시부족자금대출의 대출기간) <u>일시부족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은 1일(영업일기준)로 하며 필요시 재대출할 수 있다.</u></p> <p>제16조(일시부족자금대출 차입 금융기관에 대한 점검) <u>총재는 일시부족자금대출을 차입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유용상황, 유동성 개선대책 등을 점검한다.</u></p>	
<p>제5장 일중당좌대출</p>	<p>제4장 일중당좌대출</p>
<p>제17조(일중당좌대출의 대상금융기관) <u>일중당좌대출은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규정」에 의해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한은금융망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한다.</u></p> <p>제18조(일중당좌대출의 상환마감시각) <u>금융기관은 총재가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이라 한다)의 이용종료시각까지 그 날 차입한 일중당좌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u></p> <p>제19조(일중당좌대출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처리 등) ① <u>금융기관이 제18조에서 정한 상환마감시각까지 일중당좌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상환금액을 일시부족자금대출로 전환하여 지원한다.</u></p> <p>② <u>총재는 일시부족자금대출을 차입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중당좌대출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u></p>	<p>제14조(일중당좌대출의 대상금융기관) <u>일중당좌대출의 대상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이라 한다)에 가입한 금융기관으로 한다.</u></p> <p>제15조(일중당좌대출의 상환마감시각) <u>금융기관은 총재가 정하는 한은금융망의 일중당좌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체 종료시각까지 그 날 차입한 일중당좌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u></p> <p>제16조(일중당좌대출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처리 등) ① <u>금융기관이 제15조에 따른 상환마감시각까지 일중당좌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때에는 그 미상환금액을 자금조정대출로 전환한다.</u></p>
<p>(신 설)</p>	<p>(삭 제)</p>
<p>제20조(일중당좌대출에 대한 이자징수) ① <u>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일중당좌대출에 대하여는 이자를 징수한다.</u></p>	<p>② <u>총재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금조정대출이 제한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중당좌대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u></p> <p>제17조(일중당좌대출에 대한 이자징수)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자징수대상 일중당좌대출의 규모산정,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산출기준일 및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총재가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 칙</p> <p>제21조(자료제출) 금융기관은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2조(제재) ① 이 규정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세칙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할인 및 대출을 제한 또는 거절하거나 여신에 대하여 한국은행 최고여신이자율 범위 내에서 벌칙금리를 적용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한도 감축 또는 기존대출금 회수 등 재할인 및 대출에 대한 제한은 총재가 정한다.</p> <p>제23조(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보고) 총재는 이 규정에 의한 대출운용실적은 매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결과는 매분기마다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4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재가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자징수대상 일중당좌대출의 규모산정,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산출기준일 및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총재가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 칙</p> <p>제18조 (현행과 같음)</p> <p>제19조(제재) ① 이 규정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세칙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할인 및 대출을 제한 또는 거절하거나 대출에 대하여 한국은행 자금조정대출의 이율에 1%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출한도 감축 또는 기존대출금 회수 등 재할인 및 대출에 대한 제한은 총재가 정한다.</p> <p>제20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p>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은행법」 제54조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 수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의 구분) ①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하는 예금은 당좌예금과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조정예금으로 구분한다.

② 자금조정예금은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규정」에 따른 예금지급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자금조정예금의 거래대상기관) 자금조정예금의 거래대상기관은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조(자금조정예금의 만기) 자금조정예금의 만기는 1영업일로 한다.

제5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개정

현 행		개 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I. 여신업무이율		I. 대출이율	
구 분	이 율	구 분	이 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에 의한 대출중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에 따른 대출중	
1. 제1호에 의한 유동성조절 대출	연 4.75% 다만 대출일 직전 2개월간 연속하여 유동성조절 대출을 차입한 실적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위 이율에 1% 포인트를 더한 이율	(사)	(제)
(신)	(설)	1. 자금조정대출	(1)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하 “한국은행 기준금리”라 한다)에 1% 포인트(「금융기관 예금지급 준비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적립기간(이하 “적립기간”이라 한다)의 마지막 영업일에는 0.5% 포인트)를 더한 이율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로 하되, 적립기간의 마지막 영업일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0.5% 포인트를 더한 이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 (2) 금융통화위원회는 지급결체시스템의 장애, 자연재해 등으로 금융시장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
2. 제2호에 의한 총액한도대출	연 3.25%	2. 총액한도대출	연 3.25%
3. 제3호에 의한 일시부족자금 대출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한 콜금리 목표에 2% 포인트를 더한 이율	(사)	(제)
4. 제4호에 의한 일중당좌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중당좌대출에 한함)	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를 차감한 율로 하되,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증권업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중 평균금리로 함	3. 일중당좌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일중당좌대출에 한함)	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를 차감한 율(최저이율은 0%)로 하되,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증권업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중 평균금리로 함

현 행 (신 설)	개 정				
<p>Ⅱ. 기 타</p> <p>1. 시행일자 : 2007년 8월 9일</p>	<p>Ⅱ. <u>예금이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이 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제2조에 따른 예금중</p> <p>1. 당좌예금</p> <p>2. 자금조정예금</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p>연 0%</p> <p>(1)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1% 포인트(적립기간의 마지막 영업일에는 0.5% 포인트)를 차감한 이율(최저이율은 0%)</p> <p>(2) 금융통화위원회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장애, 자연재해 등으로 금융시장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상할 수 있음</p> </td> </tr> </tbody> </table> <p>Ⅲ. 기 타</p> <p>1. 시행일자 : 2008년 3월 7일</p>	구 분	이 율	<p>「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제2조에 따른 예금중</p> <p>1. 당좌예금</p> <p>2. 자금조정예금</p>	<p>연 0%</p> <p>(1)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1% 포인트(적립기간의 마지막 영업일에는 0.5% 포인트)를 차감한 이율(최저이율은 0%)</p> <p>(2) 금융통화위원회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장애, 자연재해 등으로 금융시장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상할 수 있음</p>
구 분	이 율				
<p>「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제2조에 따른 예금중</p> <p>1. 당좌예금</p> <p>2. 자금조정예금</p>	<p>연 0%</p> <p>(1)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1% 포인트(적립기간의 마지막 영업일에는 0.5% 포인트)를 차감한 이율(최저이율은 0%)</p> <p>(2) 금융통화위원회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장애, 자연재해 등으로 금융시장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상할 수 있음</p>				

◇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은행법」 제4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의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종류별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하여는 0%</p> <p>2.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는 2.0%</p> <p>3. 기타예금에 대하여는 7.0%</p> <p>②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발행채무는 예금지급준비금보유대상 예금채무에서 제외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은행법」 제4장 제2절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종류별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제3조(지급준비금의 계산) 각 금융기관은 매 상반월(1일~15일)중 매일의 예금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 지급준비금보유대상예금에 대한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을 <u>그 달 8일부터 22일까지</u> 보유하여야 하며, 매 하반월(16일~월말일)중 매일의 예금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 지급준비금보유대상예금에 대한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은 <u>그 달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u> 보유하여야 한다.</p>	<p>제3조(예금지급준비금의 계산) 금융기관은 매 상반월(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매일의 예금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 지급준비금보유대상예금에 대한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을 <u>다음 달 둘째주 목요일부터 넷째주 수요일까지</u> 보유하여야 하며, 매 하반월(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매일의 예금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 지급준비금보유대상예금에 대한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은 <u>다음 달 넷째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달 둘째주 수요일까지</u> 보유하여야 한다.</p>
<p>제4조(지급준비금의 보유방법) ① 금융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 당좌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35%까지 한국은행권으로 그 금융기관에 보유할 수 있다.</p>	<p>제4조(예금지급준비금의 보유방법) ① 금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 당좌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35%까지 한국은행권으로 그 금융기관에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u>최저예금지급준비금으로 인정되는 금융기관 보유 한국은행권은 제3조에 따른 상반월 및 하반월 중에 보유한 한국은행권 평균잔액으로 한다.</u></p>
<p>제5조(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보고) 총재는 「한국은행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과태금을 부과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단순한 계산착오로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5조(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보고) <u>한국은행총재(이하 “총재”라 한다)</u>는 「한국은행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과태금을 부과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단순한 계산착오로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6조(자료제출) 금융기관은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 ~ 제7조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재가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6일(2월 상반월 필요지급준비금 적립시)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2008년 2월 16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매일의 예금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 <u>최저예금지급준비금은 2008년 2월 23일부터 2008년 3월 5일까지 보유하여야 한다.</u></p>
(신설)	

◇ 「공개시장조작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	(생 략) (신 설)	제1조	(현행과 같음)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쟁입찰”이란 증권매매 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시 참가자들의 응찰금리에 따라 발행 물량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2. “모집”이란 증권매매 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시 참가자들의 응모금액에 따라 발행 물량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 “매출”이란 증권매각 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시 매입 신청 순서에 따라 그 신청자에게 발행 물량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대상기관) ①	한국은행이 이 규정에 의해 증권을 매매하거나 상대방을 따로 정하여 공모방식에 의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 ~ 4. (생 략) 5.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 6.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조(대상기관) ①	대상기관을 따로 정하여 공모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하거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 그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 (위임규정) ①	(생 략)	제3조(일상적 유동성조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규정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동성조절이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통화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사정 변동을 고려, 신속히 행하여질 필요가 있는 다음 각호의 유동성조절업무를 말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② 제1항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동성조절”이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통화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사정 변동을 고려, 신속히 행하여질 필요가 있는 다음 각호의 유동성조절업무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2장 증권매매		제2장 증권매매
제4조(대상증권) 이	규정에 의한 매매대상증권은 「한국은행법」 제68조에 따라 국채 또는 정부가 워리급 상환을 보증한 증권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통화안정증권,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한국토지공사 발행 토지개발채권, 다만, 「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과 관련하여 발행한 채권에 한한다.	제4조(대상증권) 증권매매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채 2. 정부가 워리급 상환을 보증한 증권 3. 통화안정증권,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행	개정
<p>제5조(매매방법) 이 규정에 의한 증권매매방법은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로 구분한다. 매매방식은 상대매매 또는 경쟁매매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5조(매매종류 및 방식) ① 증권매매의 종류는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로 구분하며, 매매방식은 공모방식에 의한 매매 또는 상대매매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② 공모방식에 의한 매매는 경쟁입찰 또는 모집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③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조 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이 아닌 금융기관과 상대매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리는 공모방식으로 매매할 때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p>
<p>제6조 (생략)</p>	<p>제6조 (현행과 같음)</p>
<p>제7조(경쟁입찰 낙찰결정) 경쟁입찰에 의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낙찰자 및 낙찰금액은 한국은행이 내정한 최저매각조건 이상 또는 최고매입조건 이하 입찰자중 한국은행에 유리한 순서로 결정하되 동일한 입찰조건으로 경합된 입찰자의 낙찰금액은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비례배분에 관한 끝수조정은 한국은행총재가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7조(낙찰결정)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증권을 매매할 경우 낙찰자 및 낙찰금액은 한국은행이 내정한 최고매입금리 이하 또는 최저매입금리 이상 입찰자중 한국은행에 유리한 순서로 결정하되, 동일한 입찰조건으로 경합된 입찰자의 낙찰금액은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 경우 비례배분에 관한 끝수조정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② 모집에 의하여 증권을 매매할 경우 응모자의 낙찰금액은 응모금액으로 하되, 응모금액이 매매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응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 경우 비례배분에 관한 끝수조정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p>
<p>제8조(경쟁입찰 매매금리) ① 경쟁입찰에 따른 매매금리(매매가격)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방식중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수금리(복수가격) 방식 :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를 매매금리(가격)로 하는 방식 2. 단일금리(단일가격) 방식 :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중 낙찰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가격)를 매매금리(가격)로 하는 방식 <p style="text-align: center;">② 제1항의 매매금리(매매가격) 결정방식은 입찰실시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8조(경쟁입찰 매매금리) ① 경쟁입찰에 따른 매매금리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방식중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수금리 방식 :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를 매매금리로 하는 방식 2. 단일금리 방식 :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중 낙찰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를 매매금리로 하는 방식 <p style="text-align: center;">② 제1항에 따른 매매금리의 결정방식은 입찰실시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수탁입찰) ① 제2조 제2항에 의한 대상기관은 다른 대상기관의 위탁을 받아 증권매매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증권을 매각(환매조건부매각 포함)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이 아닌 자의 위탁을 받아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등</p>	<p>제9조(수탁입찰) ① 제2조 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은 다른 대상기관의 위탁을 받아 증권매매 경쟁입찰 또는 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증권을 매각(환매조건부매각 포함)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이 아닌 자의 위탁을 받아서도 증권매매 경쟁입찰 또는 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등</p>
<p>제10조(취급기관) ① (생략)</p>	<p>제10조(취급기관)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② 제1항의 사무중 발행 및 상환은 제2조 제2항에 의한 대상 기관에게 위임 또는 대행시킬 수 있다.</p> <p>제11조(공고) <u>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또는 환매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및 기타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발행 또는 환매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u></p>		<p>② <u>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은 제2조 제2항에 따른 대상 기관에게 위임 또는 대행시킬 수 있다.</u></p> <p>제11조(공고) <u>통화안정증권을 발행 또는 환매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및 기타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발행 또는 환매하고자 할 때에는 그리 하지 아니한다.</u></p>
제12조	(생 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발행방식) ①	(생 략)	제13조(발행방식) ①	(현행과 같음)
	<p>② 공모발행은 모집, 매출 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2항에 의한 대상기관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② 공모발행은 모집, 매출 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제14조(증권의 만기) ①	(생 략)	제14조(증권의 만기) ①	(현행과 같음)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유동성조절과 관련하여 상대매출방식에 의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2년 이내에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유동성조절과 관련하여 상대매출방식에 의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2년 이내에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p>
제15조(초과 응모시의 배정)	<p><u>모집에 의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응모총액이 발행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응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비례배분에 따른 끝수조정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u></p>	제15조	(삭 제)
제16조(수탁입찰) ①	<p>제2조 제2항에 의한 대상기관은 다른 자의 위탁을 받아서도 통화안정증권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p> <p>② 입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제16조(수탁입찰) ①	<p>제2조 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은 다른 자의 위탁을 받아서도 통화안정증권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p> <p>② 입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p>
제17조(준용규정)	<p><u>통화안정증권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발행 또는 환매할 경우 낙찰자, 낙찰금액 및 발행금리(발행가격) 결정방식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제17조(준용규정)	<p><u>경쟁입찰 또는 모집으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또는 환매할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u></p>
제18조	(생 략)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대금납입)	<p><u>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위한 모집 또는 경쟁입찰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한국은행은 각 응모자 또는 낙찰자로 하여금 대금을 납입시켜야 한다.</u></p>	제19조	(삭 제)
제20조(매출)	<p>매출은 발행예정금액 범위내에서 신청순서에 따라 행한다. 다만,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에게 우선 매출할 수 있다.</p>	제20조(우선매출)	<p><u>한국은행총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법인에게 우선 매출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
제21조 ~ 제24조 (생략)	제21조 ~ 제24조 (현행과 같음)
제25조(증권장부) 한국은행은 <u>본점에</u> 통화안정증권장부를 갖추어 놓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증권장부) 한국은행은 <u>본부에</u> 통화안정증권장부를 갖추어 놓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 ~ 제27조 (생략)	제26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등록부) 한국은행은 <u>본점에</u> 통화안정증권등록부를 갖추어 놓고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부) 한국은행은 <u>본부에</u> 통화안정증권등록부를 갖추어 놓고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 ~ 제36조 (생략)	제29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
제37조(통지) ① 통화안정증권의 응모자 및 응찰자에 대한 <u>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모집 또는 서면에 의한 경쟁입찰의 경우</u> 통화안정증권응모신청서 및 입찰서에 각각 쓰여 있는 주소로 하고 <u>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통한 경쟁입찰의 경우</u>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통하여 한다. 다만, <u>경쟁입찰 응찰자에 대한 낙찰통지</u> 는 영업점 또는 영업점앞에 게시하거나 지상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제37조(낙찰통지) ① 통화안정증권의 응모자 및 응찰자에 대한 <u>낙찰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서면에 의한 모집 또는 경쟁입찰의 경우</u> 통화안정증권응모신청서 및 입찰서에 각각 쓰여 있는 주소로 하고 <u>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통한 모집 또는 경쟁입찰의 경우</u>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통하여 한다. 다만, <u>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통한 낙찰통지 또는 최고</u> 가 곤란한 경우 <u>그 낙찰통지 또는 최고</u> 는 영업점 또는 영업점앞에 게시하거나 지상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 (생략)	제38조 (현행과 같음)
제39조(증권의 상장)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u>한국증권거래소에</u> 상장할 수 있다.	제39조(증권의 상장)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u>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u> 상장할 수 있다.
(신설)	<u>제4장 보칙</u>
제40조 (생략)	제40조 (현행과 같음)
제41조(제재) 한국은행총재는 대상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참가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제재) 한국은행총재는 대상기관이 다음 각호의 <u>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참가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u>제4장 보칙</u>	(삭제)
제42조 (생략)	제42조 (현행과 같음)
제43조(취급세칙) (생략)	제43조(위임) (현행과 같음)
(신설)	<u>부칙</u>
	<u>이 규정은 200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u>

◇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

현행	개정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지급준비율) (생략) 1. ~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외계정, 해외이주자계정 및 외국환은행이 개설한 거주자계정 예금과 동계정 개설대상 해당자의 <u>양도성예금은 1%</u>	제2조(지급준비율)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외계정, 해외이주자계정 및 외국환은행이 개설한 거주자계정 예금과 동계정 개설대상 해당자의 <u>외화양도성예금증서는 1%</u>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준비금 예치) 최저 예금지급준비금의 계산방법은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준비금 예치) 최저 예금지급준비금의 계산방법은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규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 제7조 (생략)	제5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6일 (2월 상반월 필요지급준비금 적립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8년 2월 16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매일의 예금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은 2008년 2월 23일부터 2008년 3월 5일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제4차 (2008. 2. 13)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5.00%)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소비자물가는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은 오름세가 제한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장단기 시장금리가 하락하였으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일부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음
- 최근 국내 경기는 소비 증가세가 낮아지고 있으나 수출의 높은 신장세에 힘입어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 경기 부진 등으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임

2. 主要 經濟指標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1	2	3	
통 화 ¹⁾ : 본원통화 <평잔>	10억원	35,755	37,272	38,785	41,664	48,544	47,851	49,494	48,937	
	%	(6.5)	(4.2)	(4.1)	(7.4)	(16.5)	(15.8)	(18.8)	(19.4)	
	<말잔>	10억원	40,749	38,792	43,249	51,870	56,399	48,690	46,907	50,808
	%	(7.3)	(-4.8)	(11.5)	(19.9)	(8.7)	(10.7)	(12.7)	(12.1)	
M1 ²⁾ <평잔>	10억원	283,397	306,843	332,902	330,134	312,832	353,494	350,735	335,447	
	%	(6.9)	(8.3)	(8.5)	(-0.8)	(-5.2)	(7.9)	(7.4)	(3.0)	
	<말잔>	10억원	298,953	321,728	332,345	371,088	316,383	348,010	348,718	310,483
	%	(5.4)	(7.6)	(3.3)	(11.7)	(-14.7)	(6.6)	(7.7)	(-3.7)	
M2 <평잔>	10억원	888,989	929,641	993,960	1,076,682	1,197,095	1,143,815	1,154,109	1,162,429	
	%	(7.9)	(4.6)	(6.9)	(8.3)	(11.2)	(11.3)	(11.5)	(11.5)	
	<말잔>	10억원	898,069	954,723	1,021,449	1,149,262	1,273,612	1,143,373	1,150,628	1,164,051
	%	(3.0)	(6.3)	(7.0)	(12.5)	(10.8)	(11.6)	(11.1)	(11.9)	
Lf <평잔>	10억원	1,187,840	1,260,547	1,348,819	1,454,859	1,603,520	1,536,011	1,547,513	1,557,702	
	%	(8.8)	(6.1)	(7.0)	(7.9)	(10.2)	(9.8)	(9.9)	(10.2)	
	<말잔>	10억원	1,209,751	1,295,822	1,391,560	1,538,300	1,692,003	1,535,800	1,546,867	1,559,776
	%	(4.7)	(7.1)	(7.4)	(10.5)	(10.0)	(10.4)	(10.0)	(10.8)	
L <말잔>	10억원	1,415,833	1,518,885	1,653,184	1,838,965	2,055,063	1,838,945	1,858,229	1,875,372	
	%	(4.6)	(7.3)	(8.8)	(11.2)	(11.8)	(11.1)	(11.3)	(12.3)	
금 리 : 콜 금 리(1일) ³⁾	연%	3.98	3.62	3.32	4.19	4.77	4.63	4.60	4.60	
국 고 채(3년) ⁴⁾	연%	4.55	4.11	4.27	4.83	5.23	4.97	4.91	4.79	
수신평 균금리 ⁵⁾	연%	4.15	3.75	3.62	4.41	5.07	4.69	4.79	4.79	
대출평 균금리 ⁶⁾	연%	6.24	5.90	5.59	5.99	6.55	6.32	6.34	6.37	
어음부도율 ⁷⁾ : 전 국	%	0.08	0.06	0.04	0.02	0.02	0.02	0.02	0.01	
	서 울	%	0.06	0.04	0.03	0.02	0.01	0.01	0.01	

주 :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2005.11월부터 익일환매제도가 적용된 법인 MMF 제외, 2007.4월부터는 미래가격제도가 실시된 개인 MMF 제외
 3) 무담보 익일물 중개거래 기준, 월자료는 거래량의 가중평균금리, 단 연자료는 일자료의 단순평균
 4) 일자료의 단순평균
 5) 예금은행(신규 취급액) 기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제외
 6) 예금은행(신규 취급액) 기준, 당좌대출 제외
 7) 금액기준, 전자결제액 조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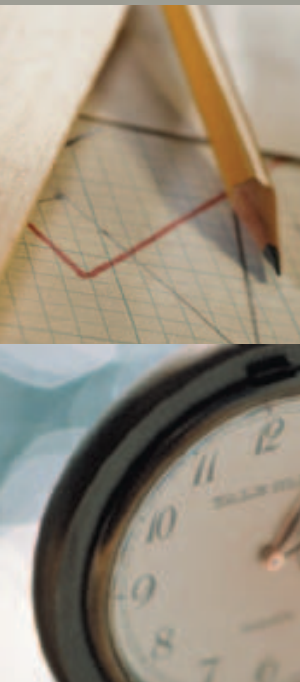
4	5	6	7	8	9	10	11	12	2008. 1	2
47,485	48,093	47,914	47,501	47,824	48,871	49,371	48,831	50,354	50,261	..
(15.3)	(18.1)	(17.7)	(13.2)	(18.7)	(17.8)	(14.3)	(17.6)	(12.2)	(5.0)	
50,815	48,722	50,637	49,233	49,243	51,017	52,201	51,980	56,399	53,108	..
(22.1)	(18.1)	(17.6)	(19.2)	(15.3)	(17.7)	(37.4)	(30.9)	(8.7)	(9.1)	
305,603	301,185	302,512	302,376	298,066	299,048	297,993	299,715	307,809	305,868	..
(-5.7)	(-7.0)	(-7.5)	(-8.4)	(-8.6)	(-8.7)	(-10.7)	(-11.2)	(-12.5)	(-13.5)	
302,621	297,873	307,489	297,752	293,370	304,024	304,054	306,941	316,383	299,221	..
(-7.4)	(-9.4)	(-9.3)	(-10.0)	(-9.7)	(-10.9)	(-9.5)	(-10.9)	(-14.7)	(-14.0)	
1,165,291	1,171,148	1,190,080	1,200,893	1,208,053	1,219,265	1,229,742	1,250,790	1,269,523	1,286,408	..
(11.1)	(10.9)	(10.9)	(10.9)	(11.4)	(11.0)	(10.8)	(11.3)	(11.5)	(12.5)	
1,161,264	1,176,275	1,204,633	1,202,372	1,208,678	1,227,055	1,244,218	1,260,623	1,273,612	1,295,781	..
(10.6)	(10.5)	(11.3)	(11.7)	(11.3)	(10.3)	(11.9)	(11.7)	(10.8)	(13.3)	
1,564,339	1,575,635	1,596,407	1,606,425	1,618,788	1,631,970	1,649,837	1,668,541	1,689,024	1,711,603 ^p	..
(10.1)	(10.1)	(10.4)	(10.0)	(10.3)	(10.3)	(10.4)	(10.4)	(10.6)	(11.4 ^p)	
1,563,302	1,581,906	1,608,927	1,607,578	1,620,365	1,642,773	1,665,095	1,680,476	1,691,565	1,713,109 ^p	..
(9.8)	(10.2)	(10.6)	(10.1)	(10.1)	(9.8)	(11.2)	(10.7)	(10.0)	(11.5 ^p)	
1,889,305	1,914,644	1,949,653	1,951,429	1,971,878	1,992,448	2,016,837	2,037,124	2,051,122	2,078,063 ^p	..
(11.9)	(12.3)	(12.7)	(12.1)	(12.4)	(12.0)	(12.9)	(12.4)	(11.5)	(13.0 ^p)	
4.69	4.61	4.54	4.67	4.92	4.98	5.00	5.00	4.99	4.99	4.97
4.94	5.10	5.24	5.35	5.28	5.39	5.42	5.54	5.89	5.44	5.06
4.84	4.86	4.87	4.97	5.11	5.28	5.27	5.50	5.84	6.01	..
6.35	6.48	6.42	6.41	6.56	6.70	6.79	6.80	7.08	7.25	..
0.02	0.02	0.03	0.02	0.02	0.02	0.03	0.04	0.03	0.03	0.02
0.01	0.01	0.01	0.01	0.01	0.02	0.02	0.03	0.01	0.02	0.01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1	2	3
G D P 성 장 률 ⁸⁾	%	3.1	4.7	4.2	5.1	5.0 ^P	— —	— —	1.0 ^P (4.0 ^P)
물가지수 ⁹⁾ : 소비자물가 (2005 = 100)	%	3.5	3.6	2.8	2.2	2.5	1.7	2.2	2.2
	%	(3.4)	(3.0)	(2.6)	(2.1)	(3.6)	(0.2)	(0.7)	(0.6)
근원인플레이션 (2005 = 100)	%	3.1	2.9	2.3	1.8	2.4	2.1	2.3	2.4
	%	(2.8)	(2.9)	(1.8)	(2.1)	(2.4)	(0.2)	(0.4)	(0.7)
생산자물가 (2000 = 100)	%	2.2	6.1	2.1	2.3	2.7	1.5	1.7	2.2
	%	(3.1)	(5.3)	(1.7)	(2.2)	(5.1)	(0.0)	(0.2)	(0.5)
실업 ¹⁰⁾ : 실업률	%	3.6	3.7	3.7	3.5	3.2	3.3 (3.6)	3.2 (3.7)	3.2 (3.5)
실업자수	천명	818	860	887	827	783	806 (851)	776 (861)	777 (840)
명목임금(전산업 월평균) ¹¹⁾	%	9.2	6.0	6.6	5.7	5.6	-8.6	21.7	6.1
실질임금(전산업 월평균) ¹¹⁾	%	5.5	2.3	3.8	3.4	2.9	-10.1	19.1	3.8
제조업: 생산지수 ¹²⁾	%	5.6	10.8	6.3	8.6	7.0 ^P	8.8	-0.1	3.3
출하지수 ¹²⁾	%	4.8	9.4	5.6	7.8	7.1 ^P	8.4	2.3	5.1
재고지수 ¹²⁾	%	6.3	9.6	5.3	8.9	5.8 ^P	10.3	8.1	4.7
평균가동률	%	78.0	80.0	79.5	80.0	80.4 ^P	79.2	79.8	79.3
국제수지: 경상수지	억달러	119.5	281.7	149.8	53.9	59.5 ^P	-4.3 ^P	4.0 ^P	-16.4 ^P
자본수지	억달러	139.1	76.0	47.6	179.7	62.3 ^P	20.8 ^P	-4.0 ^P	36.4 ^P
무역 ¹³⁾ : 수출	억달러	1,938.2	2,538.4	2,844.2	3,254.6	3,714.9	280.9	262.3	303.9
	%	(19.3)	(31.0)	(12.0)	(14.4)	(14.1)	(20.8)	(10.3)	(13.2)
수입	억달러	1,788.3	2,244.6	2,612.4	3,093.8	3,568.5	275.6	254.1	293.0
	%	(17.6)	(25.5)	(16.4)	(18.4)	(15.3)	(19.4)	(8.1)	(12.9)
외환: 외환보유액 ¹⁴⁾	억달러	1,553.5	1,990.7	2,103.9	2,389.6	2,622.2	2,402.3	2,428.1	2,439.2
대미달러환율 ¹⁵⁾	원	1,192.6	1,035.1	1,011.6	929.8	936.1	941.0	941.8	940.9
	%	(-0.5)	(15.2)	(2.3)	(8.8)	(-0.7)	(-1.2)	(-1.3)	(-1.2)

8) 전기대비 증감률, ()내는 전년동기대비
 10) 계절변동조정후, ()내는 계절변동 조정전
 1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 말잔 기준

9) 전년동기대비 등락률, ()내는 전기대비 등락률, 연간은 연말월의 전년말월대비 등락률
 1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
 13) 통관 기준,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 기말 증가환율, ()내는 전년말대비 절상(+·절하(-)율

4	5	6	7	8	9	10	11	12	2008. 1	2
—	—	1.7 ^p	—	—	1.5 ^p	—	—	1.6 ^p	—	—
—	—	(4.9 ^p)	—	—	(5.1 ^p)	—	—	(5.7 ^p)	—	—
2.5 (0.4)	2.3 (0.1)	2.5 (0.0)	2.5 (0.4)	2.0 (0.1)	2.3 (0.6)	3.0 (0.2)	3.5 (0.0)	3.6 (0.4)	3.9 (0.5)	3.6 (0.4)
2.6 (0.3)	2.2 (0.0)	2.3 (0.1)	2.3 (0.2)	2.3 (0.1)	2.3 (0.1)	2.4 (0.1)	2.4 (0.1)	2.4 (0.2)	2.8 (0.6)	2.8 (0.4)
2.5 (1.1)	2.5 (0.6)	2.7 (0.2)	2.4 (0.2)	1.7 (0.1)	2.1 (0.7)	3.4 (0.3)	4.4 (0.4)	5.1 (0.8)	5.9 (0.8)	6.8 (1.1)
3.3 (3.4)	3.3 (3.2)	3.3 (3.2)	3.3 (3.2)	3.2 (3.1)	3.2 (3.0)	3.1 (3.0)	3.2 (3.0)	3.1 (3.1)	3.0 (3.3)	3.0 (3.5)
801 (817)	807 (779)	797 (777)	798 (795)	773 (756)	765 (719)	760 (733)	778 (733)	761 (736)	735 (775)	738 (819)
5.3	5.4	4.8	6.3	6.2	10.9	-0.1	5.4	5.7
2.8	3.0	2.2	3.6	4.1	8.4	-3.0	1.8	2.0
6.2	5.8	6.8	13.9	9.1	-3.3	16.2	7.8	9.9 ^p	12.1 ^p	..
7.4	6.7	6.7	14.4	7.2	-3.9	15.2	7.8	9.0 ^p	10.3 ^p	..
3.8	3.3	3.6	2.1	4.8	2.2	4.3	4.1	5.8 ^p	7.1 ^p	..
80.2	81.1	80.9	80.5	81.1	78.8	81.7	80.8	81.0 ^p	82.1 ^p	..
-20.8 ^p	8.4 ^p	12.7 ^p	15.5 ^p	5.7 ^p	23.0 ^p	24.6 ^p	15.1 ^p	-8.1 ^p	-26.0 ^p	..
42.0 ^p	36.0 ^p	-13.6 ^p	5.4 ^p	-3.1 ^p	-35.6 ^p	-19.1 ^p	-15.0 ^p	12.2 ^p	2.7 ^p	..
299.4 (17.0)	310.4 (11.1)	320.0 (14.5)	302.1 (17.2)	310.0 (13.6)	293.2 (-1.1)	344.3 (22.9)	358.1 (17.0)	330.3 (14.8)	323.2 (15.1)	311.6 (18.8)
296.0 (20.9)	298.6 (13.9)	285.1 (9.5)	292.2 (14.4)	296.4 (9.7)	271.9 (-1.6)	327.4 (27.8)	339.3 (26.8)	339.0 (23.2)	361.1 (31.0)	324.1 (27.6)
2,472.6	2,507.4	2,507.0	2,548.4	2,553.0	2,572.9	2,601.4	2,619.3	2,622.2	2,618.7	2,623.6
930.8 (-0.1)	927.7 (0.2)	923.8 (0.6)	919.3 (1.1)	938.3 (-0.9)	915.1 (1.6)	900.7 (3.2)	921.1 (0.9)	936.1 (-0.7)	943.9 (-0.8)	939.0 (-0.3)



THE BANK OF KOREA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매년 3월 및 9월경에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